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신앙과 삶

7+8

JUL + AUG

2024 vol.31

특집

외국인 유학생,
선교의 기회인가, 교육의 위기인가?



사람사이 유재봉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청년시론 어두운 방 안에 있는 나를 찾으신 하나님

문학로 세상 보기 훌륭한 제자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ISSN 2671-8731

Contents

JULY + AUGUST · 2024

시선

놓쳐서는 안 될 선교의 대상, 외국 유학생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유학생 선교의 핵심은 나그네 환대 | 신국원 04

특집

외국인 유학생, 선교의 기회인가, 교육의 위기인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 | 강영택 06

유학생 사역의 역사와 MZ세대 유학생 사역의 접근 방법 | 박정우 08

학령인구의 감소가 가지고 온 위기와 기회라는 역설 | 송화성 10

한국 캠퍼스를 찾아 온 유학생 환대하기 | 정동영 12

선교와 교육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의 필요성 | 김재수 14

유학생 선교의 의의와 방향성 | 강진호 16

함께 가는 공동체 | 조병진 18

디지털 사회에서의 유학생 선교 | 신기현 20

외국인 유학생,

어찌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닐 수 있을까? | 장정주 22

한동대학교 사례를 통해서 본 외국인 유학생 사역의 의미 | 최성호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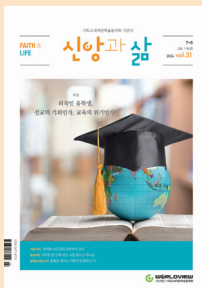
그물을 넓게 던져야 할 제2의 선교의 기회 | 최원호 26

사람 사이

유재봉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28

섬김의 자리에서

만남이 연결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 이창진 32



2024. 7+8월호 | 제31호(통권 246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어두운 방 안에 있는 나를 찾으신 하나님 나오미 다르마데바	34
한 유학생의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린느 오세안	36

청년 일터 이야기

한국의 희망, 신앙, 치유의 메아리 아셀리나 무카체	38
--------------------------------	----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훌륭한 제자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강진구	40
--------------------------	----

미술을 보다

문화의 구속과 책임 있는 예술가 서성록	42
-------------------------	----

책을 보다

프랑스의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의 비결 김태항	44
심연에 머무르기, 역설을 끌어안기 김반석	46

교회 路

성균관대 서울캠퍼스 유학생교회(ISC-SKKU) 소개

성균관대 서울캠퍼스 유학생교회 소개 최위	48
소감문 :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항목자	49
교회를 통해 받은 선물들 이원호	49

온전한 지성

판 프린스터리의 기독교 세계관(III) : 칼뱅주의 황영철	50
------------------------------------	----

소식

사무국 소식	52
관련기관 소식	53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4



놓쳐서는 안 될 선교의 대상, 외국 유학생

손봉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우리나라에 온 외국 유학생이 18만 명이나 되고 2027년까지는 30만 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불과 반세기 전에 외국에 유학했던 사람으로서 매우 감격스럽다. 물론 지금도 비슷한 숫자의 한국 학생이 외국에 유학 중이지만, 이제는 우리 경제, 민주주의, 문화뿐만 아니라 학문과 기술도 외국 학생들이 배워 갈 만한 수준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신입생 부족으로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에 힘쓴 것도 다소 작용했겠지만 배워 갈 것이 없으면 유학생이 올 이유가 없다.

원인이야 무엇이든 유학생이 늘어난 것은 복음 선교를 위해서는 절호의 기회다. 새로운 종교는 익숙해진 사회에서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 더 쉽게 수용될 수 있다. 오래된 종교와 그것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치관이나 인간관계는 새로운 종교가 비집고 들어갈 공간을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 좀 더 세속화된 대도시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면 다른 종교로의 개종은 훨씬 쉬워진다. 한국처럼 이미 상당할 정도로 세속화된 나라에서도 외국에서는 교회 문 앞에도 가지 않던 젊은이들이 미국이나 독일에 유학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수용한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 한국

지식인 전도는 미국, 영국, 독일 사회와 거기에 있는 한인교회가 담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한국에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것은 선교사들이고 학교, 병원, 유치원 등을 세워 복음화의 기초를 닦은 것도 선교사들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켜서 기독교를 한국의 최대종교로 만든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아니라 그들이 키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선교사들이 세운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선교사들의 주선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에 유학한 한국 학생들이 귀국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훈련했으며 한국의 현대화를 주도했다. 이 유학생들이 없었더라면 한국 교회는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고 한국 사회도 이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와 비슷한 것을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들이 귀국하면 아무래도 지도층에 진입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영혼이 소중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겠지만 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에게 들어간 복음은 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유학생 전도는 사회의 지도층 복음화와 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거의 필수적이다. 물론 복음은 특히 무시되고 천대받는 하층에 전해져야 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전해져야 한다. 그러나 어느 사회든지 지도층이 복음화되지 않고는 그 사회 전체의 복음화가 불가능하다. 인도에는 이미 2천 년 전에 사도 도마가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도 복음화의 수준과 폭이 미미한 것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그 사회의 최하층에 몰려있고 최상층 브라만에는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도층에 진입할 가능성이 큰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효율성이 매우 높은 선교 전략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1970년대에 아세아복음주의 신학회는 한국에 아세아연합신학원(Asian Centre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ACTS)을 설립해서 운영했고, 그동안 상당한 열매도 거두었다. 한국인을 훈련하여 선교지에 파송하기보다는 현지 교회의 젊은 신학생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신학교육과 선교 훈련을 시키는 것이 비용이나 효율성에서 월등하게 유리하다는 계산에서 이뤄진 것이다. 선교사 양성에는 선교교육 외에 선교지의 언어를 습득하고 낯선 문화와 풍속 등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자녀교육과 노후대책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현지인 학생 초청은 그런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뿐 아니라 사역 기간과 효과를 월등하게 키울 수 있다. 지금도 양평에 위치한 아신대학교가 'ACTS'의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른 신학교들에도 상당수의 외국 신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이미 귀국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 학장 혹은 교수로서 현지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

1997년에는 외국 유학생들을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학생회(International Student Fellowship-ISF)가 조직되어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나도 18년 간 이사장으로 섬겼다. 모슬렘, 힌두교인, 공산권 학생들을 고려하여 명시적으로 전도하진 않지만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알리고 있다. 명절에 기독교 가정에 홈스테이를 주선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며, 관광여행, 산업 시찰, 판문점 방문, 주거지 주선, 공항 영접, 파티 개최,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유학생들의 체류가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되도록 도와주고 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은 숨기지 않고, 상황이 허용하면 복음도 전한다. 나그네는 늘 불안하고 좀 외롭다.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것은 그 자체가 성경의 명령인 동시에 복음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유익하고 필요한 사역인데도 교계의 관심과 도움이 너무 적어 거둘 수 있는 열매를 충분히 맺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어쨌든, 한국 교회는 유학생 전도라는 이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기아대책 이사장을 역임했다. 도산인상,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대 사회봉사상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도 섬기고 있다.

유학생 선교의 핵심은 나그네 환대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이번 호는 근래에 급증한 외국인 유학생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동역회에는 외국 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기에 피부에 닿는 주제입니다. 저희 중에 외국인 유학생을 섬기는 이들이 많은 것도 지난날 받은 신앙의 위로와 사랑 때문입니다. <시선>도 외국인 유학생 증가가 세계관적으로도 중요한 선교의 문을 열어 준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고국에 돌아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들이 겪는 불안과 외로움을 복음의 사랑으로 감싸는 소중한 기회를 잃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특집>에서 강영택 교수님은 외국인 유학생을 신앙의 관점에서 바르게 환대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선교'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전인적인 교육의 섬김을 통해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 주길 강조합니다. 박정우 광운대학교 목사님은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별로 복음에 대한 태도의 다양함에 맞추어 섬기는 방안을 알려줍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양적 전략에서 학업성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서 선교 사역도 이에 맞추어 가되 대학 행정부서의 입장도 존중하는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송화성 백석대 교목님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찾아가서 돌보는 것이 해외 선교보다 훨씬 수월한 섬김의 기회이지만, 한국 대학 교육의 질이 낮아질 위험도 감안해 바른 섬김에 힘쓸 것을 권합니다. 정동영 목사님은 잘 안이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보내주는 것이 환대와 살핍의 핵심임을 외대교회 31년 사역의 경험과 열매를 통해 가르쳐줍니다. 김재수 교수님은 외

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른 선교적 기회와 교육적 도전이라는 딜레마를 교육의 강화를 통해 극복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진호 교수님은 국가와 인종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는 상호 호혜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대위임령의 실천임을 경북대학교교회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조병진 교수님도 카이스트국제교회가 외국인 유학생을 선교의 대상이나 한국교육의 위기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이요 제자로 대하고, 교회에서도 주체적 소속감과 강한 신앙훈련을 통해 귀국 후 교회가 없는 곳에서도 신앙을 지키도록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기현 이사장님은 개방적인 디지털 사회 속에서 대중의 의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신학이 바로서 있는 선지자 역할을 주문합니다.

장정주 교수님은 한국어를 배우려 열방의 청년들이 몰려온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복음 전파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섬기던 교회에서 파송 받아 지금이 절호의 세계선교 시즌임을 감사해합니다. 최성호 한동대 교목님은 50개국 200여 명의 한동대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어서 심화된 성경교육과 전문성을 갖춘 멘토링을 통해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부산대 유학생 전담 직원이자 지역교회의 담임이신 최원호 목사님은 부산시의 유학생 유치와 정착 인력 확보 사업과 다문화 사회에 부합한 선교 대책의 실행을 주문합니다. 선교단체들도 연합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과 국제적 안목의 사역 전

문성도 갖추 것을 당부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유교 이념에 세워진 성균관대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섬겨온 유재봉 교수님이 복음 전도만 아니라 건실한 신학적 기초 위에 깊이 있는 교육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증가가 교육의 위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르치는 이들이 복음과 학문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섬김의 자리〉의 이창진 동역회 미디어팀장님은 ‘위플렌트’ 대표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미디어 사역을 섬기면서, 기독교 세계관이 모든 영역에서 방향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미디어를 통한 연결의 은사와 소명이 복음 사역에 쓰여지는 소망도 나눕니다.

〈청년 시론과 청년 일터〉에서는 한국외대에 교환학생으로 온 영국인 나옴이 다르마데바 자매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방황하던 가운데 외대교회에서 신앙의 본질을 되찾아가는 경험을 나눕니다. 중앙아프리카 가봉에서 경북대에 유학 중인 린느 오세안 자매도 한국어와 학업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매달려 힘을 얻고 극복하는 과정을 들려줍니다. 모잠비크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아셀리나 무카체 자매는 서울대 유학생으로 겪는 불안과 우울증 및 불면증에 자살 충동까지 신앙으로 이겨내며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에 진학하게 된 과정을 소개합니다.

〈영화를 보다〉 강진구 교수님은 〈울지마 톤즈〉가 보여준 이태석 신부의 아프리카 선교 열매인 톤즈 키즈들의 한국 유학기를 비롯한 영화의 거룩한 영향력을 소개합니다. 〈미술을 보다〉 서성록 교수님은 우리나라 기독교 작가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예술의 현재를 소개하며, 성경적 관점에서 밝고 아름다운 면만 아니라 타락으로 깨어진 세계와 씨름하며 구속 사역에 참여하는 ‘아트미션’을 비롯한 여러 기독교 예술가 공동체의 비전을 전해줍니다.

〈책을 보다〉에서 김태황 교수님은 이상민 박사와 박동열 교수님이 쓴 〈저출산 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는가〉(2024)를 평했습니다. ‘삶의 질을 위한 인구정책’이라는 부제처럼, 프랑스 사회가 출산을 회복만이 아니라 가족의 삶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일관되게 추진한 것을 소개합니다. 김반석 형제는 탁장한 박사님의 〈서울의 심연〉(2024)이 보여주는 쪽방촌 사역의 현실 분석을 소개합니다. 저자가 쪽방촌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 근본적 역설과 모순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씨름하며 다각도로 바라본 이야기임을 최대의 미덕으로 꼽습니다.

〈교회로〉에는 성균관대 유학생교회를 섬기는 최위 전도사님의 사역 소개와 항목자 자매와 이원호 자매, 두분의 짧은 간증이 실렸습니다. 두 분 다 중국에서 유학을 와서 성균관대 유학생교회를 통해 신앙을 배움과 동시에 학업과 한국 생활 적응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나눕니다.

황영철 목사님은 〈온전한 지성〉에서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의 불신 사상에 맞서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30년에 걸친 공교육 투쟁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귀한 글을 기꺼이 써 주신 모든 필자님과 항상 좋은 소식을 만들기 위해 애써준 편집위원님들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FAITH & LIFE**

✍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

강영택 (우석대학교 사범대 교육학 교수)

우리나라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의 수는 2023년 18만 명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학생 수를 2027년까지 30만 명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외국 유학생들이 증가하는 오늘날의 현상은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도 지니고 있다. 이 글은 그러한 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보다 학업을 위해 타국인 우리나라에 온 유학생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8월에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여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 한다.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대학의 세계(글로벌) 경쟁력의 강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언론들은 대학들이 유학생을 대하는 태도를 다음 두 가지로 단순화하여 보여준다. 먼저, 서울의 일부 주요 대학들의 경우는 유학생 유치를 부족한 교육재정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등록금을 국내 학생에 비해 2~5배 가량 올려 받고 있다.(서울경제신문, 2017. 08). 반면 지방대학의 경우는 등록금을 깎아주고, 어학 기준을 낮춰주는 등 외국인 유학생에게 ‘혈값’으로 학위장사를 한다.(경향신문, 2017. 08).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하는 기독교계의 관점은 양면적

인 성격을 갖는다. 유학생들이 증가하던 초기에는 한국에 온 외국 유학생, 특히 공산국가나 회교권 나라의 학생들에 대해 그들을 전도와 선교의 대상으로 대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다가 그 편협한 시각을 반성하면서 유학생들을 보다 온전한 인격적 주체로 보는 자세로 변화하였다.

“기독교 대학이라 할지라도 종교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외국인 유학생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중 기독교가 아닌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전체 70% 이상이다. 전형적인 예배 형식을 강요하기보다 보편적인 사랑이나 이웃 섬김 등의 가치를 언급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학생을 포교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섬기며 존중하는 자세가 첫 번째 덕목”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일보, 2024.07)

외국인 유학생 문제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는 복잡한 이슈이다. 한 국가의 정부는 외국 유학생들이 가져올 국가적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대학에서는 유학생들이 기여할 대학발전의 요소를 따져볼 수도 있다. 교회는 선교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일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점들을 모두 인정한다 해도 사람을 대하는 기본

적인 태도와 원칙은 변할 수가 없다. 사람을 대상화하여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목표가 아무리 거창하고 거룩하게 보여도 사람을 그 일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어떤 나라에서 온 유학생이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며, 예수께서 대신 죽으실 만큼 존귀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유학생들에 대해 우리는 환대의 정신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대는 '우리의 초청'에 기인한다기보다 '그들의 방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환대한다는 것은 그들을 대면할 때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먼저 고려하기 전에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를 신앙이 없는 정부나 대학에 요구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그들을 우리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에 앞서, 그들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펴 그것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유학생들의 필요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에는 참다운 지식에 대한 갈증 해소와 지식 습득의 방법론에 대한 이해 등이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유학생들을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충족되지 못한 다양한 배움의 기회들을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하여 교육을 통해 유학생들이 개인적 안녕(well-being)을 누릴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 평화(shalom)를 실현하는 일을 돕는 것이 신앙인의 중요한 책무성이 아닐까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에는 중국에서 석박사과정으로 유학 온 대학원생들이 많은 편이다. 그들 중 많은 경우는 학위과정을 쉽게 마치려는 (불순한) 의도로 지방에 있는 대학을 선택한 듯하다. 그러나 일부는 교육을 받

으면서 새롭게 경험하는 배움의 힘에 이끌려 공부 그 자체에 매력을 느껴서 공부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도 종종 보게 된다. 환대의 정신으로 강의실이나 연구실에서 그들을 대하는 교수의 태도로부터, 그룹 토론과 대화로 이루어지는 개방적 수업 방식과 질문과 성찰로 이어지는 배움의 일상화는 그들에게 작은 충격이 되곤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본국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배움의 기쁨을 맛보거나 인생의 중요한 실존적 깨달음을 얻곤 한다. 공부를 마친 한 학생이 필자에게 준 편지 글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¹

“나는 W 대학교에서의 학습 경험을 매우 그리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의 공부는 나를 참된 자아로서의 자기(self)를 알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의 배움은 끝없는 성찰을 통해 나 자신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형성하는 사회를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W 대학교에서의 공부는 그러한 이해, 즉 자신의 참된 자아와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RN). **FAITH & LIFE**

1. 필자의 최근 책, 〈시로 읽는 교육의 풍경〉에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에서 한 새로운 교육적 경험에 대한 글이 있다.



글쓴이 강영택



우석대학교 사범대 교육학 교수이다. 저서로 〈기독교와 교육의 공공성〉, 〈마을을 품은 학교공동체〉, 〈지속 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위하여〉, 〈시로 읽는 교육의 풍경〉 등 기독교(학교)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 교육과 아름다움에 관한 다수의 책이 있다.

유학생 사역의 역사와 MZ세대 유학생 사역의 접근 방법

박정우 (광운대학교회 담임목사)



“요즘 유학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내가 근무하는 대학과 근처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담당하는 교직원과 그리스도인 교수들에게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유학생 사역은 국내 유학생 1세대 사역자인 나에게도 매년 새로운 접근 방법을 고민하게 하는 민감한 주제이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친 MZ 세대 유학생들은 대면과 비대면의 익숙한 수업 참여, 좋고 싫음의 직설적인 표현, 충분한 SNS 의사소통, 권리와 욕구 충족을 위한 적극적 요구의 특징을 보인다. 나는 유학생들의 복음에 관한 입장을 대략 이렇게 파악한다. “중국 학생은 무관심하고, 베트남 학생은 적대적이며, 중앙아시아 이슬람권 학생은 거부하고, 일본 학생은 귀찮아하며, 몽골 학생은 아직 열려 있다.”

유학생을 담당하는 대학 행정 부서는 양적 유치를 위한 ‘정량적 접근 방법’에서 유학생의 효능감 있는 학업 과정 성취를 위한 ‘정성적 접근 방법’으로 초점을 바꾸고 있다. 입학과 학업 과정, 졸업 이후까지 대학이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유학생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을 도입한 것이다. 대학의 유학생 정책 변화와 궤를 같이하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도 유학생 대응방식을 유학생의 학업과 문화 적응에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의 자리에 초대하는 방향으로의 새로운 플랫폼이 마련이 필요하다. 유학생에 대한 접근방식은 각 대학이 처한 상황에 따라 대학별로, 국가별로 다양하다. 지속 가능한 복음 사역을 위해 대학 사역자들은 대학 행정 부서의 입장을 존중하고, 대학 내 그리스도인 교수와 교직원 같은 그리스도인 구성원과 소통하여 접근 방법을 계속 함께 모색해야 한다.

나는 2001년 이후 유학생 사역 역사를 간략히 성찰해 보려 한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경험한 대학 현장 사역의 과정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현재 MZ 세대 유학생을 위한 사역 방법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첫째, 2005년~2012년은 사역 발아기였다. 2006년 12월 7일 광운대학교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광운선교회’와 지역교회는 국내 유학생 선교를 시작하고자 서울 북동 지역 28개 대학교와 30여 개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유학생 선교협의회’(Fosko)를 조

직했다. 둘째, 2013년~2019년은 확장기였다. 이 기간, 국내 대학이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를 시작했고, 교육 부도 2023년까지 줄어드는 학령인구 4만 명을 더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2015년에 'Study Korea 2020 Project'를 발표하며 유학생 20만 명 유치 계획 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전국 대학에 유학생 급증과 유학생 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들이 참여하면서 활발한 유학생 선교의 동력이 되었다. 셋째, 2020년~2024년은 코로나 19를 경험한 유학생 세대를 위한 새로운 접근 플랫폼이 요구된 시기였다.

최근 발표된 유학생 통계에는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2005년 2만 2,562명에서 2024년 1월 말 현재 22만 4,006명으로 증가했다. 20년 동안 열 배의 유학생이 늘어난 것이다. 베트남(8만 1,073명), 중국(6만 9,923명), 몽골(1만 3,749명), 우즈베키스탄(1만 2,546명)의 순이다. 주목할 변화는 가장 많은 유학생 출신 국가는 여전히 중국이었으나, 2024년부터 베트남이 1위로 역전했고, 중앙아시아의 전통적 이슬람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이 4위로 진입한 것이다. 중국과 몽골 중심에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양적 변화는 '사회주의권 문화권에서 불교권과 이슬람권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앙아시아 이슬람권(수니파) 학생들의 증가는 무슬림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역 전략을 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대학 현장에서의 경험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광운대학교에서 대외 국제처 자문위원, 학생상담실 다문화상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매 학기 초에 유학생 학업과 생활 지원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대학의 행정 담당 교직원과 소통해 왔다. 동시에 전공 적

응지원, 학업 부진과 다문화 상담, 이삿짐 돕기, 결식 유학생 사랑의 식권 후원 역할을 '광운선교회'가 지원할 수 있게 연결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활동이 대학 행정 부서와 협력의 대상이 되고, 유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공적인 기여는 유학생들에게도 기독교의 인식 개선에 선한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진행하는 주요 두 가지 섬김 사역이 있다. 한국문화 소개와 한국인 친구를 만나게 되는 '참빛한글사랑방'(학기당 6회), 그리스도인 교수와 교직원이 '엄마·아빠' 역할인 멘토가 되어 유학생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참빛사랑멘토링'을 학교 행정 부서와 공동 운영함으로써, 학교 구성원과 유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호응하여, '서울 지역 은퇴 교수 모임'이 '참빛사랑멘토링'에 참여를 준비 중이다. 현재 국내 유학생 대다수는 복음을 접하지 못했거나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국가 출신이 많다. 나그네로서 이들은 보편적 섬김의 대상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랑의 대상이다. 이제 글로벌 유학생을 섬기기 위한 복음 편의점 'GS24 플랫폼'을 '유학생 선교협의회'에 이어서 설립을 준비 중이다. 관심 있는 사역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유학생은 복음으로 충분히 섬겨야 할 대상인 나그네(Foreigners, 신명기 10:18-19)이다. 관망과 관찰의 대상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보배이다. FAITH & LIFE



글쓴이 박정우

광운대학교회 담임목사이다. 광운대학교 대외 국제처 자문위원, 학생상담실 다문화상담 위원, 광운대 인재니움 학부 대학 겸임교수로도 일하고 있고 글로벌유학생 복음 편의점 'GS24 플랫폼' 본부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가 가지고 온 위기와 기회라는 역설

송화성 (백석대학교 어문학부 첨단 IT학부 교목)

다른 나라로 유학을 많이 떠났던 우리에게 이제는 유학을 위해 해외에서 찾아온 청년들이 점점 많아져 간다. 우리는 이들을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한다.¹

우선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을 살펴보자.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생 100명 중 6명이 외국인 유학생이다.² 어느 나라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유학을 많이 오고 있을까? 국가별 비율을 살펴보면 중국 37.4%, 베트남 23.8%, 우즈베키스탄 5.7%, 몽

골 5.7%, 일본 3.2% 등이다. 최근 학위과정에서는 네 팔이 일본 대신 5위권으로 진입하였고, 비학위 과정에서는 몽골이 3위권 내로 진입하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이 목표다. 이는 우리나라 ‘학령인구’³ 감소의 대안이자,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글로벌 인재를 확보한다는 의미이다.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 유학생이 현재와 같이 증가한 상황의 의미를 다음 두 가지로 간략히 정리해 보자.

1. ‘외국인 유학생’이란 우리나라에서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4. 각 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을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한국유학안내시스템(www.studykorea.go.kr)과 외국인종합안내센터(www.hikorea.go.kr, ☎1345)를 운영하고 있다.

2. 2023년도 기준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전체 재적학생 수는 3,042,848명이다. 이들 중 외국 학생 수는 181,842명으로 약 6% 정도이다. 대략 100명 중 6명꼴인 셈이다. 20년 전에 비해 15배, 10년 전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이다. 정부 초빙이나 대학 초청도 있지만 대부분 자비유학생이며, 학위과정으로 129,240명(학사과정 81,087명, 석사과정 30,012명, 박사과정 18,141명)이 대학에 다니고 있고, 어학연수나 교환연수생,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등 비학위 과정도 52,602명에 이른다. 어느 나라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유학을 많이 오고 있을까? 국가별 비율을 살펴보면 중국 37.4%, 베트남 23.8%,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각각 5.7%, 일본 3.2% 순으로 많다. 최근 동향을 보면 학위과정에서는 네 팔이 일본을 제치고 5위권 내에 진입하였고, 비학위 과정에서는 몽골이 일본을 제치고 3위권 내로 진입하였다. ‘교육통계서비스’. 한국교육개발원(2023).

첫째, 유학생의 증가는 선교의 기회다.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은 선교의 좋은 모델이다. 직접 찾아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선교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 또한 많다. 우선 문화가 다른 타문화권에서는 만남 자체가 어렵다. 선교지 사람들이 다른 문화에 대한 배척도 강하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러도 선교의 열매를 맺기 쉽지 않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그들이 먼저 다가온다. 우리 문화에 대한 낯설음은 있겠지만, 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친절하게 대해주

3. ‘학령인구’란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학교에 다닐 연령인 만 6세~21세 사이 인구수를 뜻한다.

면서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유학생들에게 전한 복음은 유학생에게만 머물지 않고 본국에 돌아가 복음전파를 하게 된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 학교에서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 한 분은 유학생에게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공부한 학생이 두 번 공부하고 믿겠다고 했다. 세 번 공부하고 자기 나라에 예수 부도님을 전도했다. 앞으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한다. 자기 나라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선교를 잘할 수 있다.

하나 더 소개하면 이러한 사례도 있다. 유학생 한 명이 캠퍼스를 거닌다. 다가가서 인사를 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식사를 두어 번 했다. 돌아가서 자기 나라의 옷을 아내 것과 함께 하나씩 보내왔다. 유학 올 정도면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산 사람일 수 있다. 자기 집에 하녀가 몇 명씩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학생들에게 현지에 가면 접근조차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가가기도 쉽고 선교하기도 쉽다. 따라서 누가 뭐래도 선교의 기회이다.

둘째, 유학생의 증가는 교육의 위기다. 유학생이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능력시험'(토픽) 4급, 5급 이상이면 공부하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언어가 되지 않는데 학령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진학한 경우가 있다. 유학생 본인들은 다른 나라 문화체험 특히 K-팝, K-드라마, K-컬처와 더불어 유학까지 할 수 있어 좋을지 모르지만,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이나 과제의 완성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또 유학생에게 너무 맞추다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공부까지 나가지 못하게 되어 원망이 쌓인다. 그렇다고 유학생 따로 한국 학생 따로 강의를 개설하기에는 학교로서도 부담이 크다.

유학생들 가운데 가난한 학생들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학습, 독서량이 떨어지고 공부를 더욱 못 따라가게 된다. 어떻게든 졸업을 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유학은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교육수준이 왜곡되어 전달될 수도 있다. 공부를 잘 못 따라가는 이들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교육은 위기다. 대학마다 외국인 멘토링 장학생을 붙여 교육의 정상화를 힘쓰기도 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유학생은 양날의 칼 같은 기능을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찾아온 유학생들을 환대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유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돌봄, 공부에 대한 돌봄, 정서적인 돌봄을 통해 자연스레 선교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FAITH & LIFE**



글쓴이 송화성



백석대학교 어문학부 첨단 IT학부 교육이다.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장신대 신학대학원, 세계선교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오랫동안 세종대, 건국대 등 여러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위한 복음 선교사로도 섬겼다. 현재에도 주 관심사는 여전히 청년 영혼들이며, 예배와 섬김, 대학예배, 교양특강, 인간윤리, 인간과 공동체, 기독교와 세계 문명, 성서의 지혜, 관계와 소통의 미학, 기독교와 대중문화, 직업 소명과 실천, 기독교와 공동체 윤리, 기독교 세계관, 사람다운 사람 등에도 관심이 많다.

한국 캠퍼스를 찾아 온 유학생 환대하기

정동영 (한국외국어대학교회 담임목사)



한국외국어대학교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있다. 내가 섬기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회(이하 외대교회)에도 약 11개국 학생이 모이는 글로벌교회이다. 어느 목사님이 캠퍼스 사역을 하는 나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목사님, 해외 아웃리치 언제 떠나세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는 여기가 아웃리치예요. 매일 전 세계의 학생들을 만나는 캠퍼스가 저의 아웃리치입니다.” 팀 켈러(Timothy J. Keller) 목사와 그의 아들 마이클은 “오늘날 대학보다 더 큰 선교지는 없다.”라고 하였다. 정말 오늘날 대학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지이다.

수많은 유학생을 외대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이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 글을 통해서도 생각해보았다. 나의 결론은 ‘환대와 살핍’이었다. 나에게 ‘환대와 살핍’이란 인종과 종교와 나라와 관계없이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한국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환대와 살핍’은 구체적으로 “잘 안아주고, 잘 먹여주고, 잘 가르쳐주고, 잘 고쳐주고, 잘 보내주는 것”이다. ‘잘 안아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엄한 인간으로 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며 받아주는 것이다. 유학생들은 타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집과 가족이 그리다. 따라서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자신들을 기다리는 가족의 따사로움을 늘 그리워한다.

나는 ‘환대와 살핍’에서 첫째로 중요한 것이 ‘잘 안아주는 것’이라고 본다.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살핀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심으로 좋아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잘 안아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필자의 아내는 교회에서 또는 캠퍼스에서 만나는 많은 유학생을 잘 안아준다. 안아주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 ‘엄마’라고 생각하며 안긴다.

두 번째는 ‘잘 먹여주는 것’이다. 유학생들은 로망이 있다. 한국 사람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귀한 손님으로 여기는 것이다. 또 유학생은 자신을 귀하게 대해주는 이들을 통해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어느 유학생을 초대하여 집에서 식사했을 때, 자신이 한국에 10년 동안 있었는데, 한국 가정에 초대받은 식사는 처음이라고 하며 감격했다. 그래서 외대교회 지체들은 종종 가정을 오픈하여 식사한다. 그리고 교회가 운영하는 '학사'(숙소)가 있는데, 이곳에서도 유학생들을 초대하여 식사하며 교제하며 우정을 쌓고 있다.

세 번째는 '잘 가르쳐주는 것'이다. 유학생들은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외대교회에서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 30분, 10주 일정으로 ISF(국제학생회) 한글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원어민 교사에게 10주 동안 한글을 배우며 돌봄을 받는 과정이다. 한국어 교사는 한글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도 함께 살피며 우정을 쌓고 있다. 2023년 2학기부터 시작한 외대교회의 이 ISF 한글학교를 통해 약 19개국 130명의 유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다. 유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 속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새가족반을 준비하였다. 10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네 번째는 '잘 고쳐주는 것'이다. 유학생들은 한국 생활을 하며 식사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심하다. 따라서 외대교회는 한 학기에 한번 할렐루야교회와 분당우리교회 의료팀을 학교로 초청하여, 약 8개 진료료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베풀고 있다. 처음에 의료 돌봄을 시작했을 때, 유학생들은 "진짜 의사 맞나?"라고 질문을 하였다. 왜 학교로 와서 무료진료를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진들의 섬김을 받고 나면 또 언제 오는지 꼭 알려달라고 하고 돌아간다. 현재 19

회째에 이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잘 보내주는 것'이다. 외대교회의 섬김 중에 잘 보내주는 방법은 'ISF 한글학교 종강 파티'가 있다. 유학생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파티를 준비한다. 온누리교회 '여호수아팀'의 도움으로 출장 뷔페의 대접을 받고 조별 발표를 하며, 각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과 한글과 자국 언어로 쓴 축복의 편지를 받아 돌아간다. 유학생들은 한국을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친구들도 있다. 유학생들의 마지막 인사는 예외 없이 눈물이 함께 한다.

미국 애즈버리신학대의 조지 헌터(George Hunter) 교수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12번에서 20번 정도의 '넋지'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촉하도록 돕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넋지'란 부드러운 개입으로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는 외대교회의 '환대와 살핌'이 풍성한 '넋지'가 되었기를, 나아가 주님께서 복음 영접의 '넋지'로 이어지게 인도하셔서 유학생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늘 기도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정동영



한국외국어대학교교회 담임목사이다. 이 교회에서 31년째 사역하고 있으며 '외대교수 & 직원신우회' 지도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양학부 겸임교수로서 19년째 <기독교사상의 이해>를 가르치고 있으며 외대 강의상을 3회 수상하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민대 문화교차학과에서 사회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선교와 교육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의 필요성

김재수 (경기대학교 융합과학대학 생명과학전공 교수)

2004년 이전에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1만 명 미만으로 매우 적었으나, 2016년부터 1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7년 만인 2023년에는 18만 명을 넘어서 현재는 약 23만 명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 가파르게 증가하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코로나 시기에 잠시 정체되었으나, 이후 다시 급증하는 추세로 돌아섰고, 앞으로 정부 주도로 2027년까지 30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해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정부는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를 완화하고, 첨단 분야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

선교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유학생 수의 증가는 선교 대상자가 많아지는 것이므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스럽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선교적으로도 유익하고 동시에 교육적으로도 질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적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많은 지방의

캠퍼스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많은 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함으로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대부분 대학교의 외국인 학부생과 어학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 학생들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낮다. 첫째, 대부분 아르바이트(알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더 나아가 정부에서는 인증대학에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25시간에서 30시간까지 늘려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고, 실제로 많은 유학생이 허가 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공부하러 온 건지 돈 벌러 온 건지 알 수가 없다.

둘째, 학부생의 어학 실력이 전공을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한국어능력시험’(TOPIK) 3, 4급이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데 솔직히 교양이나 전공강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가끔 3, 4급의 유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애먹는 적이 많았다. 정부가 세종학당 등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는 이력만으로도 한국어 능력을 인정해준다는 정부의 발표는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셋째로 학부생의 경우 한국 학생과 경쟁 없이 유학생 끼리만 상대평가를 받아 실제 실력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학점을 받는다. 즉 열심히 공부 안 해도 졸업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선진국에서는 유학생도 본국의 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유학생 특혜 없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교가 학문의 전당으로서 배움의 터전이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장사하는 사업체로 전락해버렸고, 많은 유학생은 대학교를 공부가 아닌 돈 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는 더 많은 학업 미달자를 양산할 뿐이다.

그렇다면, 선교와 교육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솔직히 당장 해결할 만한 방안은 떠오르지 않는다. 당장은 선교적인 측면이 약화될지라도 학문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학생과 비슷한 학업 성취도를 달성하려면 성적평가 시스템을 통합하고 특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많은 유학생이 중도 탈락을 하게 될 것이고 학교는 재정적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불법 체류자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장기간 이 시스템을 유지하면, 유학생들이 무조건 한국으로 유학하러 오기보다는 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어학 실력을 키우며, 재정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 대학들도 경쟁력 있는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학사 관리를 강화하여 한국 학생과 동일하게 하고 장학금을 늘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도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장학생을 많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오로지 12명만 제자로 키웠고 실제로 12명의 제자(사도바울 포함)가 세계 복음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많은 교인을 양성하기보다는 소수의 영향력 있는 제자를 키우는 것이 어찌 보면 보다 효율적인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조치로 경쟁력 없는 학교가 문을 닫고 선교의 대상자가 줄어들더라도, 사회질서와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감내해야 한다. 유학생을 단순히 이윤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대학 정책에 호응해 선교의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만을 보고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근본이 잘못되었으면 그 근본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자 선교의 정신이다. 하나님도 편법에 동조하면서까지 선교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든 교육이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인의 고질적인 방법과 과정에 상관없는 빠른 성과주의를 경계하고, 사람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양심에 거り끼지 않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여!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의 큰 축을 담당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나라가 유학생 선교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FAITH & LIFE**



글쓴이 김재수

경기대학교 융합과학대학 생명과학전공 교수이다. 성균관대학교 이과대 학사, 석사를 마치고 Texas A&M University에서 환경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8년부터 외교부 사단법인 국제학생회(ISF)에 이사로 역임하고 있고 경기대학교에서 베트남유학생교회(KVF)를 섬기고 있다.

유학생 선교의 의의와 방향성

강진호 (경북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 경북대학교교회 외국인 유학생 섬김이)

오늘날 한국 경제가 GDP 기준 세계 13위 정도에 도달하고 K-컬처가 세계화 되고 있는 데 힘입어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숫자는 18만 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온 외국인 유학생 수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감소한 외국으로 나간 한국인 유학생 12만 명을 훨씬 능가하게 되었다. 한편 국내 다수 대학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처하고 글로벌 대학평가에서 국제화 지표를 높이려고 향후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기에, 한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수의 역전현상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근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급속한 증가는 선교적 차원에서도 대학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나는 이 새로운 외국인 유학생 물결이 한국 교회가 세계선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오늘날 한국 사회 각처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과거 외국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처음으로 복음을 알게 된 선례를 비추어 볼 때 분명해진다. 실제로 내가 근무하는 경북대학교에도 약 1,4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등으로 재학하고 있고, 대학은 점점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현상에 발맞추어 대학 교회를 비

롯한 대구 지역 몇몇 교회도 수년 전부터 유학생을 위한 외국어 예배를 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유학생이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세례 교인이 되었고 또 학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 후에도 가족과 직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필자가 섬기는 경북대학교교회도 매년 세례받는 유학생이 생겨나고, 졸업생들이 귀국 후 각자 전문직에 종사하면서도 그리스도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나는 여기서 글로벌화가 일상화되어 외국인의 유입이 날로 증가하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대학 교회를 비롯한 지역교회의 유학생 선교사역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북대학교교회의 유학생 사역을 사례로 소개하며 유학생 사역의 의의와 긍정적인 방향성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경북대학교교회는 약 15개국 50여 명의 외국인이 주일에 함께 예배, 식사, 말씀 나눔을 하고, 주중 기도회와 성경공부 모임을 하는 신앙 공동체이다. 교인 대다수가 외국인 유학생, 연구원, 교수이지만 소수 이주 직장인도 있다. 그래서 교인들 다수가 학업 기간과 근무 기간이 각각 다르기에 교인들은 늘 주안에서 처음 만나는 반가움과 정든 이별을 경험한다. 그리고 다언어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에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모임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통용한다. 또 구성원들이 모국에서 다양한 교파의 배경을 갖고 있기에 경북대

학교회는 사단법인 대학교회연합회(CCA)에 소속된 초교과 교회이며,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각 소모임 리더를 비롯한 교회 대표들로 구성된 실행위원회와 교인 총회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특징을 가진 경북대학교회는 유학생을 예수의 사랑으로 환대하고 그들이 복음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여 각처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동역자로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선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필자도 정년을 앞두고 대학 교회에서 유학생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5년 전 경북대학교회 유학생 선교사역에 동참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유학생 선교 교회에서 여러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기에, 이 글을 통해 유학생 선교사역의 성경적 의의와 유학생 선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몇 가지 개인적 의견을 밝혀 보고자 한다.

첫째, 유학생 선교사역은 다국가, 다인종, 다문화로 모인 교인들이 국가, 인종,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주안에서 한마음으로 교제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성경 속의 초대교회가 보인 한 몸 된 믿음 공동체를 체험하게 한다. 그래서 유학생 선교 교회는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경계를 허물고 형제가 연합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오늘날 민족, 인종, 이념, 등의 경계로 분열되어 경쟁과 갈등을 겪는 현대사회에 화합과 일치의 대안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유학생 선교사역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주인의식을 갖고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형제를 지키며 돌보는 수평적 공동체를 만들게 한다. 물론 유학생들은 처음에 한국의 이질적 환경에 적응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학생들도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같은 형제

자매로 동질감을 갖게 되면, 한국 학생들과 함께 캠퍼스와 지역에 봉사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된다. 이 예로 경북대학교회의 유학생들은 경북대기독교학생연합회 주관 캠퍼스 예배 및 전도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경북대의료선교회가 주관하는 매학기 유학생을 위한 무료진료에도 통역과 안내로 자원봉사를 하며, 또 지역교회 대학생들과 연합하여 노숙자를 돌보는 사역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셋째, 유학생 선교사역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는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실천하게 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유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귀국할 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잘 훈련된 전문직 선교사를 그들의 본국으로 파송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세계 각처에 퍼져 있는 유학생 동문들은 유학생 선교 교회가 향후 지속적으로 땅끝까지 세계선교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네트워크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경북대학교회도 여러 국가에 거주하는 유학생 동문들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후속 선교사역으로 몇 차례 아프리카, 아시아 몇 국가를 방문하여 그곳의 동문들과 동역하고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강진호



경북대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이다. 전국교수선교회 파송 교수선교사이며, 경북대기독교수회 회장과 한국영미어문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경북대학교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섬기고 있다.

함께 가는 공동체

조병진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 KCIC 섬김이)



나는 대학 시절에 전문인 선교에 관한 꿈을 가지게 되었다. 대학원에서는 그 꿈이 동남아의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하면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좀 더 구체화되었다. 박사학위를 마친 후에 해외 연구소와 국내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전문인 선교의 길을 모색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NUS(싱가포르국립대학교)에 교수로 가게 되었다. NUS에서 10년 동안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과 열매가 있던 중에, 주께서 다시 한국으로 부르심을 느끼고 2007년도에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오랜만에 한국의 캠퍼스로 돌아온 이후에 학교 안을 걸어 다니다 보니, 내가 학생이었을 때와는 다르게 학교 안에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나는 기회가 되는대로 학생들을 붙들고 같이 성경공부 하는 것이 일상적 습관이 되어 버린지 오래라서, 그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하는 성경공부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영어 성경공부를 한다고 공지를 했더니, 영어로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인 학생들도 함께 모이게 되어서, 우리의 모임은 처음부터 한국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 되었다. 그 모임을 진행하다 보니, 참석하던 외국인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공부에 참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지역 교회에 출석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였다. 그런데 그 외국인 유학생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다닐 만한 교회를 주변에서 찾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끼리라도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학교 안에서 주일 예배를 시작한 것이 KIC(카이스트 국제교회, KAIST International Chapel)의 시작이었다. KIC는 이제 곧 15주년을 맞게 되고, 지금은 카이스트 가까이 있는 충남대 학생들도 참석하게 되어서 현재는 KCIC(KAIST-CNU International Chapel)라는 이

름으로 100여 명의 학생이 매주 모이고 있다. KCIC 에는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이 함께 모여서 모든 것을 함께 한다. 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의 비율은 6:4 정도 된다.

나는 주위에서 우리 KCIC 공동체를 외국인 학생을 섬기는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 속에는 우리 한국인들의 영적 우월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학생은 우리의 섬김을 받는 대상이거나 선교의 대상이고 우리는 섬김을 베푸는 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솔직히 이번 <신앙과 삶>의 특집 주제인 '외국인 유학생, 선교의 기회인가 교육의 위기인가'라는 표현도 처음 보았을 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외국인 유학생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도 아니고, 한국 대학 교육의 위기의 징후도 아니다. 그들은 그냥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일 뿐이다. 내가 가르쳐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제자들일 뿐이다. 그들을 진정으로 우리 학교 구성원의 일원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몸의 일부로 생각할 때, 그들은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온몸과 온 영혼으로 받아들임은 나는 오랜 기간의 캠퍼스 사역을 통하여 목도해 왔다.

한국에서는 많은 이들이 'International'이란 말을 한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것은 틀린 생각이며,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International' 속에는 당연히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KCIC에는 당연히 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이 구별 없이 모이고 있다. 필자도 이들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 훈련을 시키고, 공동체의 일들을 맡기고 있다. 즉 KCIC 공동체는 한국인이 외국인을 섬기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서로 섬겨야 한다. KCIC에는 설교를 해 주시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있긴 하지만, 전임(full-time) 사역자가 없기에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맡은 일을 해 주어야만 공동체가 돌아간다. 그래서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항상 이방인이거나 열외 취급을 받던 외국인 학생들이 이 공동체에 오면 주인공처럼 느끼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깊은 소속감이 생기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 일부로 자라간다. KCIC에서는 매년 10명 가량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는다.

올해도 중국 1명, 나이지리아 1명, 인도네시아 2명, 필리핀 1명, 멕시코 1명, 말레이시아 1명, 한국 3명 이렇게 10명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았다. 참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KCIC의 혹독한 신앙훈련 프로그램을 수년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졸업 후에는 각 나라에서 설교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가게 되더라도,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서라도 영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목표를 가지고 영성 훈련 및 신학훈련을 하게 된다. 이 일은 외국인 유학생을 선교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다음 세대의 복음 사역자를 길러내는 일일 뿐이다. 십자가는 이미 모든 막힌 담을 허물었기 때문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조병진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이자 KCIC 섬김이다.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벨기에 IMEC 연구소 연구원, 현대전자 반도체연구소 팀장, 싱가포르국립대 교수(1997~2007)를 역임했다. 이때 자택을 개방해 중화권 학생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했다. 카이스트 교수(2007~현재)로 부임한 후에는 캠퍼스에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했음을 깨닫고 주일에 학교 식당을 빌려 학생들과 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했다. 이것이 KIC의 시작이었고, 코로나19 기간에 카이스트와 충남대 학생들이 합쳐져 KIC는 현재 KCIC가 되었다.

디지털 사회에서의 유학생 선교

신기현 (ANMC(All Nations Mission on Campus) 이사장)



국내외적으로 대부분의 주요 캠퍼스는 국제화되어 있다. 국내에도 2023년 기준, 약 200여 개 국가로부터 약 21만여 명 이상의 외국인 학생, 교수, 연구원들이 국내 약 300개 대학에 분산되어 있다.

이제 대부분의 국내 주요대학은 해외 유학생 비율이 10%를 넘어, 선교현장이 되고 있다. 국내외 많은 캠퍼스는 이제 세계 각 곳의 문화와 정보 및 기회에 있어 개방적이며 통합적이고, 모든 캠퍼스 구성원이 모바일을 통한 무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대화하며 공감하며 살아가는 디지털 사회가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유학생 선교는 지금까지의 특정 국적별, 문화집단별 유학생 선교 전략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방언이 함께 문화를 초월하여(Meta-Cultural) “진리의 복음”을 공유하며 공감하도록 전도하여야 한다. 문화와 언어 및 인종이 다르지만,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경 속의 진리, 약

속, 계명, 예언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가르쳐지고 공감되며, 성도의 의식과 삶에 내재화되어 성령님이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도록 훈련하여야 한다. 특히 캠퍼스에서 이러한 훈련은 공개적인 그룹 토론 등을 통하여 객관화되고 성경적이 되도록 구체적인 프레임이 제공되어야 한다.

캠퍼스 ‘디지털 사회’(digital society)는 개방적이며, 통합적이고, 공감대를 가진 개인들의 집단화 및 집단적 의사결정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일단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집단적 의사결정이 성경적으로 볼 때 항상 옳지는 않을 수도 있다. 선교사, 목사, 그리스도인 교수 등, 교회 리더들의 유학생 선교에서의 역할은 여기에 있다. 그들은 대중의 의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캠퍼스 디지털 사회에 알려주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도전략을 통하여 “한 새 사람(엡2:15)” 즉 보편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다음과 같이 요한계시록 7장 9-10절에 미리 보여주신 궁극적인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오늘날 유학생 선교 관점에서 “진리의 복음”과 성경의 진리, 약속, 계명, 예언에 대해 참으로 알고 있는 유학생은 얼마나 되는가? 선교사, 목사, 그리스도인 교수 등 교회 리더들은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유학생 선교를 위해서는 유학생들 돌보기, 한국어 가르치기, 개인의 연구돕기, 직장 찾아 주기를 넘어서서, 성경 속 진리의 말씀을 통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유학생들을 찾아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유학생들이 개인의 지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는 권능의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머리로 하는 유학생교회를 모든 캠퍼스마다 개척하여야 한다.

교회에서 신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학이 있는 교회”를 추구하여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내재화하여,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교

회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ANMC(All Nations Mission on Campus)가 성균관대학교 유학생교회에서 2024년에 시작한 ABI(ANMC Biblical Institute)는 유학생교회에 제자를 세우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말씀 공부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유학생 선교에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시되는 교회가 유학생 선교의 목적이고 답이다. 캠퍼스를 포함한 디지털 사회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와 정보는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필터링 되고, 성화되며, 재구성되도록 훈련하고 살아내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디지털 사회에서 공유되고 공감되는 모든 정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도록 하여 평강과 권능이 넘치는,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선교사, 목사, 그리스도인 교수 등 교회 리더들은 자신과 학생들이 말씀과 예배를 통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고, 심각하게 회개할 때라고 생각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신기현

ANMC(All Nations Mission on Campus) 이사장이자 건국대 기계공학부 명예교수이다. 성균관대 국제학생교회(ISC-SKKU) 담임목사, 전국대학국제교회연합(CICA) 회장을 역임했다.

외국인 유학생, 어찌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닐 수 있을까?

장정주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 서울대학교회 국제예배 섬김이)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국의 많은 대학이 학생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전국 대학의 전체 입학정원은 약 49만 명을 조금 넘고 있지만, 대입 입학 자원은 해마다 감소하여 2022년 기준 약 41만 명으로 8만 명이 부족하며 이러한 부족분은 매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하여 대학정원 신입생 충원율이 90% 미만의 대학들이 점증하고 있으며, 이미 2018년도 기준 전국 20%의 대학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연 대학 교육의 위기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대학의 현실에 가뭇의 단비와 같은 희망의 소식도 함께 들려 오고 있다. 당장 한국의 출산율이 증가하여 학령인구의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의 청년들

이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에 외국인 유학생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약 9만 명이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2023년에 약 18만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 명까지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나는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를 대학 캠퍼스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목격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는 약 3만 명의 학생이 머물고 있으며 현재 해외 120여 개국에서 약 3,000명의 학생이 학위 및 비학위 과정에서 수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의 연구실 길 건너편에 언어교육원이 자리잡고 있는데, 한 번씩 그쪽으로 걸어가게 되면 수많은 각국의 외국 학생들이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 구름 떼처럼 다니는 것을 보면서, 한국말이 뭐길래

저렇게 수많은 외국 청년들을 매료시켜 저 먼 본국에서 이곳까지 오게 했는지 만감이 교차하곤 한다. 뿐만 아니라, 캠퍼스 내 기숙사에는 국내의 학생들이 숙식을 하는데, 그곳에도 110여 개국에서 온 약 1,400명의 외국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듣고 있다. 그야말로 이 땅의 반만년 역사에서 이처럼 수많은 열방의 청년들이 오로지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 혹은 한국에서 수학하기 위해 몰려온 적이 있었던가? 진정으로 우리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 르네상스기라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절호의 기회, 즉 복음의 씨를 뿌리고 추수할 수 있는 수확의 기회로 보인다.

나는 최근 1년간 연구년을 보내면서 특별히 미국에서 6개월을 지내면서 인생의 다음 여정을 위한 비전을 기도로 구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을 내게 주셨다. 약 30년 전 불신자인 나를 이곳 미국에 박사과정 학생으로 보내어 겸허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외국인 사역을 담당하시는 이웃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나의 모습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어, 복음의 빛을 한국 서울대 캠퍼스로 유학온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되갚게 하는 감동을 주시었다. 그리하여 이를 믿음으로 반응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다. 지난 10년간 섬겼던 지역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얻어 지난해 11월 말 귀국하자마자 서울대학교교회 국제예배로 옮기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그 10년의 섬김을 마무리하고 그 지역교회에서 모든 교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국제사역을 위한 선교사로 정식 파송을 받게 되었다.

현재 서울대학교교회 국제예배를 섬기고 있으며, 많은 국제 학생들이 이곳 기독 공동체를 통하여 섬김이들

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다. 뿐만 아니라, 캠퍼스 내 뜻과 마음을 같이하는 이들과 국제 사역팀을 결성하여 국제 학생들을 위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다. 매 학기 초에 국제 학생들을 위한 '웰컴'(welcome) 파티를 열어 주고, 무료 한국어 교실도 열어 준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국제 카페를 만들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무료로 커피와 다과를 제공하며 자유롭게 서로 교제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리고 학기 중에 학내 피크닉 행사, 방학에는 '원데이'(one-day) 투어를 통해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제공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을 섬기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마무리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세계선교의 시즌이다. 우리가 멀리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직접 우리의 땅으로 오니 얼마나 좋은가? 이 땅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 본국으로 보내게 되면 그들을 통해 복음화가 땅끝까지 더욱 확장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선교의 중심국가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절호의 기회를 가뭇게 여기지 말고 우리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참으로 감사하다.

FAITH & LIFE



글쓴이 장정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다. 서울대 경영학 학사, 석사,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영정보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경영학회 상임이사를 역임했고, 〈한국 기업의 경영정보시스템 변천사〉 등 저서와 다수 논문을 썼다. 서울 '주님의영광교회'의 개척을 도와 지난 10년간 섬기다가 서울대학교 국제학생 사역을 위해 파송을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교회 국제예배를 섬기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한동대학교 사례를 통해서 본 외국인 유학생 사역의 의미

최성호 (한동대학교 교목)

나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유학생과 교직원들을 상대로 사역하고 있다. 한동대학교의 영문 명칭인 'HGU' 가운데 'G'는 공식적으로 'Global'의 약자이며,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만큼 단순히 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넘어서 보다 폭넓은 국제적 정체성과 교육이념을 추구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HGU'는 Handong God's University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는 국제적 정체성과 더불어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한동대학교 뿐 아니라 국내 많은 대학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외국인 학생 유치에 추진하고 있다. 기독교 대학과 한국 교회는 이러한 현상을 기독교 선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한동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사역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입이 증가하는 지금은 분명 선교에 대한 '인식의 전환'(Paradigm Shift)을 촉구하는 시점이다. 몇 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 '선교'라고 하면 대부분 해외 선교를 떠올렸을 것이다. 게다가 개발도상국 혹은 오지가 일반적인 선교지로 인식되었다.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해 왔고, 그 성장과 선교 열정은 실로 대단하다. 최근 한

국에 온 외국 유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선교적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선교 전략의 다각화도 시급한 시점이다. 한동대학교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상당수는 그리스도인이며, 학교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기독교 대학이라는 점을 꼽았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제자훈련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공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선교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한동대학교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50개국에서 온 2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지되고 있다. 대부분 모국어와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줄 알며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소통에 큰 어려움이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과 원활히 소통하며 어떻게 그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느냐가 관건이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의 한동대학교 국제처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삼년간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바로 영어 강의 부족과 유학생들을 위한 진로 및 진학 지원 프로그램의 낮은 만족도였다. 이 소통의 벽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실상 말씀을 통한 심도 있는 양육과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제화된 교과/비교과적 학습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과 같은 현지 적

응 지원과 이들을 섬기는 특성화된 그룹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신앙지도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내 제공되고 있는 기독교 과목이 너무 기초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유학생 상당수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심화 성경교육과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나아가 개인적인 ‘멘토-멘티’ 구조 아래 영적인 성장을 돕는 일이 별로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동대학교에서는 재학생 중에서 ‘새내기 섬김이들’을 세워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돕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왔다. 이 섬김이들을 통해 대학 생활 교육(Honor Code, 에티켓 교육 등), 동료 신입생들과의 관계, 대학 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대한 외국인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공동체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각종 예배와 기도 모임을 활성화하는 초석을 마련했다.

셋째, 이러한 선교적 기회가 왜 어떤 이들에게는 교육의 위기로 인식되는 것일까? 아무리 유익한 일이라도 항상 양면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가장 큰 위기라고 한다면 비그리스도인 유학생들이 대거 유입되었을 때 기독교 신앙과 정체성에 대한 위협을 우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동대학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의 필수 채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민원을 확인한 바 있다. 사도신경이라든지 성경 읽기 운동 그리고 필수 기독교 신앙 관련 교양과목들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다원주의적인 정책과 정체성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 기독교 안에서도 다양한 교파들과 신학적 입장들이 존재하고, 타 종교들에 대한 존중과 이해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입되어 오

히려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흐리고, 세속화를 부추긴다는 견해를 간파할 수만은 없다. 나는 이 부분에서 많은 고심과 연구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속화를 극도로 경계하면 기독교 공동체는 자신들만의 영역에서 고립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미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들만 영입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선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28장 18-20절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레위기 19장 33절-34절에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는 말씀이 있듯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입은 분명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선교적 기회이다. 그들의 필요를 잘 살피고, 바른 신학과 말씀으로 원활히 소통하는 일에 한국의 기독교 대학들이 앞장선다면, 이는 교육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선교의 기회가 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최성호



한동대학교 교목이다. 중학교 2학년 때 영국 웨일즈로 건너가 유년 시절을 보냈다. 맨체스터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한 뒤 런던 Heythrop College를 거쳐 웨일즈 Trinity Saint David에서 신약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웨일즈에 있는 Union School of Theology에서 성서신학을 강의했으며, 2012년 여름 한국에 귀국하여 국내 대학에서 강의와 영어예배를 통해 외국인 학생들을 섬기고 있다.

그물을 넓게 던져야 할 제2의 선교의 기회

최원호 (부산하나교회 담임목사,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유학생 전담 직원)

쓰나미 vs 그물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이 관용적 표현은 어떤 일에서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의미다. 이를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현시대에 맞게 재구성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유학생이 많이 들어올 때 그들을 품고, 담을 수 있는 그물을 넓게 던져라!”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한국 교계와 캠퍼스 사역자들은 적어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임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살며 사역하고 있는 부산시는 좋은 예이다. 한국의 초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부산시 역시 학생 수 급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 제2의 도시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부산시는 대학은 물론 이하 공립학교까지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나섰다.

지난 3월(2024. 3. 28) 부산 시청에서 ‘부산형 유학생 유치 양성 방안’(Study Busan 30K Project)을 주제로 제42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렸다. 부산시는 2024년 현재 유학생 수 1.3만 명을 2028년에 3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4년 안에 유학생 수를 최소 2.3배 증가하게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 내의 22개 대학이 제시한 연도별 유학생 유치 목표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부산시의 목표는 초과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시는 취업 구직 비자 전환율도 현재 22%에서 2028년에 40%까지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학생을 학업 목적의 한국 단기 거주를 넘어 장기 정주인력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교계와 캠퍼스 사역자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의 ‘그물’을 제대로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쓰나미’와 같은 유학생의 한국 유입 현상은 가히 우리에게 주신 ‘제2의 선교의 기회’다. 해외 선교를 향했던 열정과 헌신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게 할 선교의 대상들이, 이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유학생은 ‘단일민족, 단일문화’ 중심에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예비 정주민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 현상은 언제까지 지속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초저출산이라는 충격적 위기를 해결하고자 성급하게 마련한 유학생 유치 방안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절묘한 ‘기회’로 삼고, 유학생의 원활한 정착 및 유학생 선교를 위한 대비와 전략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캠퍼스 선교 ‘플랫폼’

부산대학교는 초대 총장 윤인구 박사(목사)가 설립한

한국 최초 국립대학이다. 오늘날까지 부산대학교의 교육 이념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진리, 자유, 봉사'이며, 학교 곳곳에 기독교적 상징과 구조물이 자리 잡고 있다.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교내 공식적인 종교 모임은 불가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나누며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이 있어 감사하다.

이러한 학내 여러 구성원의 헌신의 귀한 열매로, 유학생들과 함께 하는 '부산대 금요정오채플(Friday Noon Chapel, FNC)'이 4년 전 시작되었다. 학기 중 매주 금요일 정오에 모여, 점심 식사 제공 및 모든 사역이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진다. 부산대학교 내의 92개국에서 온 2천여 명의 유학생들은 우리가 복음으로 섬겨야 할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필자는 이곳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매주 복음 메시지를 나누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FNC는 누구나 참석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캠퍼스 선교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캠퍼스 내 선교단체 역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신입생 모집과 전도는 더욱 힘들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사역의 성격이 다른 선교단체들이 명분 없이 연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밀물같이 들어오는 유학생을 한마음으로 바라보며 '국제적 안목의 사역 전문성'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각개전투'에서 벗어나 연합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FNC는 각 선교단체 사역의 특수성을 존중하되, 공통의 가치인 '복음'을 듣고 나눌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캠퍼스 선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여 이어지고 있다.

교내 공적 장소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짐으로 참여하는 사역단체의 공신력을 뒷받침해 준다. 그렇게 찾아온 이들을 향한 다국어(한/영) 복음 증거를 FNC에서 감당하되 선교단체에게 특수성이 있는 제자훈련 및 소속감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한 단계나 기관이 혼자 다 감당하는 형태가 아닌 상생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필자는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이면서, 평일에는 부산대학교의 직원으로 유학생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적 지원은 타 부서에서 받을 수 있지만, 정서적 어려움과 영적 갈급함에 대해서는 도움받기 어려운 유학생들을 돕고 있다. 우울증 등에 대한 상담은 물론, 자살 충동, 폭행, 사기 등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나 속 시원히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발 벗고 나선다. 실제적인 도움을 받은 유학생들이 채플에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마지막으로 선교단체나 지역 교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들이 값없이 받은 '은혜'가 '복음'을 듣는 통로가 됨을 알기에 캠퍼스 사역은 언제나 기회의 땅이다. 이제 한국 교회가 밀려오는 유학생들을 품으며 그물을 넓게 던질 때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최원호



부산하나교회 담임목사이다. 동아대 영어영문학과,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목회연구원(신학석사)에서 공부했다. 현재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유학생 및 국제화를 전담하는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부산대 금요정오채플(Friday Noon Chapel)도 인도하고 있다.

유재봉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동역회 이사



인터뷰어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일 시 2024년 7월 16일 오전 11시

장 소 성균관대학교(서울) 호암관 707호 연구실

석종준 교수님께서 2020년 3월에 ‘성균관대 서울캠퍼스 유학생교회’(ISC-SKKU)가 세워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학생들을 섬겨 오셨습니다. 어떤 개인적 배경과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유재봉 성균관대 서울캠퍼스 유학생교회의 설립은 표면상 신우회 소속 네 명의 교수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은 외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설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내적으로는 신우회가 유학생교회를 설립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형편이었어요. 그리고 인문사회 교수들의 특성상 생각과 말은 많고 실천과 행동은 더디죠(웃음). 우리는 좀 더 준비해서 가능한 늦게 교회를 설립하려고 했고, 형편에 맞게 그냥 학교 강의실을 대여하여 소박하게 유학생교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9년 먼저 세워진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유학생교회의 적극적 도전과 지원으로 우여곡절 끝에 예배 처소를 마련하여 지금까지 중국 유학생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켜보면, 유교적 이념을 지

외국인 유학생은 선교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이다. 그러나 한국 교육계의 차원에서 보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한국 교육의 위기에 관한 상징적 지표일 수도 있다. 이 두 측면은 모두 현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신앙과 삶>(7+8월호)의 ‘사람 사이’(인터뷰)는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을 현장에서 직접 복음으로 섬기며, 동시에 한국의 교육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유재봉 교수님(성균관대 교육학과 / 성균관대 서울캠퍼스 유학생교회 섬김이)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함께 더 기도하며 감당해야 할지에 관한 해안을 얻고자 한다.

향하는 성균관대에서 20년 전에 신우회가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때가 차매 그 신우회를 통해 유학생교회가 설립된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저는 성균관대 신우회 창립 멤버이고 유학생교회 설립 멤버이기도 하지만, 제가 무슨 열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각 시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인도에 그냥 순종한 겁니다. 다른 교회설립 멤버 교수들 역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곳에 유학생교회가 설립된 것은 우리의 열심 때문이기보다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고, 그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지요.

석종준 교수님도 한때는 외국인 유학생이셨지요. 이제는 반대로 교수로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관계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섬기시면서 느끼신 소감과 보람 등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재봉 맞습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영국에서 외국인 유학생이었지요. 돌아보면, 저는 유학생 생활 초기에는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배운 것이 많고 유익한 경험도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으로서의 저의 경험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학도로서의 경험입니다. 우선 저는 유학 초기에 영국 교회를 배우기 위해 존 스토틀(John Stott)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All Souls Church에 출석했는데요. 거기서 강해 설교를 배우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목회자들이 본문을 이어 설교하는데, 서로의 색깔을 달리하면서도 조화를 잘 이루는 팀 목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들린 한국인 유학생교회에 붙잡혀 한국에서 IMF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은 2년 반 동안 런던의 한인교회에서 목사님을 도와 유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어요. 사실 한인교회에서의 사역은 제가 무엇을 가르쳐 준 것보다는 제가 공부하는 동안 나태해질 내 신앙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신앙을 유지시키기 위한 도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학생 사역에서 해방된 저는 공부와 사역으로 몸과 영혼이 지쳐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집 근처의 그 당시 영국에서 보기 드문 개혁주의·복음주의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회복시키고 말씀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한편 교육학도로서 저는 교육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이 모여 있는 런던대학교 Institute of Education에서 강의, 세미나, 논문지도(Supervision) 등을 받으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때로는 비판하면서 사고의 폭을 넓혀 갔습니다. 그 교수들 중에는 우리 가족을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해 주신 친절한 부부 교수, 격주마다 내가 쓴 글에 대해 성실하게 슈퍼비전을 해 준 지도 교수도 있었고, 학위논문에 들어 있는 자신의 견해에 대한 글을 가져오게 하여 자발적으로 특별 슈퍼비전을 해 준 석학도 있고요, 자신의 세속적이고 인본주의 견해에 나의 비판을 기꺼이 받아준 저명한 교육철학자도 있었습니다.

유학생으로서의 저의 이런 다양한 경험은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0

여 명의 유학생을 지도해 왔습니다. 1명의 미국인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중국인이고, 2명의 박사과정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석사과정 학생이었지요. 아무래도 외국인이라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하고, 글쓰기는 더 큰 난관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나를 가르친 외국인 교수들도 얼마나 답답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유학생들을 도왔습니다. 한 명씩 학위를 줄 때마다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고, 유학생들에게 너무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 한국 학생들의 불평불만이 생기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현재 섬기는 성군관대 유학생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중국에 있었다라면 주님을 믿는 것이 어렵기에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시고, 또 유학생교회에 출석하여 세례를 받고 세계관이 바뀌게 하시며 믿음이 성숙해 가도록 섭리하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느꼈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석종준 이렇게 우리가 선교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약 2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분명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시대적 의미와 소명의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봉 물론 우리나라에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한 이유는 표면적으로 경제적, 문화적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 이면에 있는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해 왔으나, 최근에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기존의 선교사도 추방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 선교사를 훈련하여 파송하기보다는 유학생을 잘

양육하여 본국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방식으로 선교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 교수와 학생의 인격적 · 교육적 관계에 토대를 둔 유학생 교회가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유학생교회가 최전선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의 군사가 되어주면서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을 후원함으로써 함께 협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한국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갖추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많은 유학생을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석종준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한국 교회와 대학 캠퍼스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보다 더 외국인 유학생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경계하거나 조심해야 할 대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유재봉 글썄요,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학생교회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교파 간의 신학적 차이보다는 복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학생교회는 다양한 교파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성원들 사이에 말씀의 해석도 예배의 형식도 달라요. 그렇지만 자신의 신학 배경이나 신앙 색깔은 묻어두고, 유학생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제일 우선 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유학생교회의 약점은 '신학' 혹은 '신학 체계'인 것 같아요. 복음의 외적 열매나 '은사' 혹은 '은사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신학적 토대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릇된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 있지요. 유학생교회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받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만, 제자로, 지도자로, 선교사로 양육하려면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하지요. 그렇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건전한 신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리더들이 함께 신학과 성경을 공부하면서 신학을 정립해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종준 반면에 교육계의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유학생이 약 20만 명에나 이르는 된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 이유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한국 사회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정부 대책의 결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재봉 우리나라에 유학생이 증가한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유학생이 증가한 이유를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측면에서도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학생이 증가한 이유가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정부의 대책 때문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교육과 재정에 위기의식을 느낀 대학들이 자구책으로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측면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공계의 경우 진학하는 대학원생이 적어 실험실을 운영하기가 힘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각 대학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석종준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문제의 내막을 살펴보면 대학들 사이에도 입장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국내 학생들보다 더 많이 받는가 하면, 반대로 지방 소재 어느 대학들은 오히려 등록금을 대폭 깎아주고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등 대학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재봉 그건 대학마다 형편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한국의 대학, 특히 사립대학들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하다는 점이지요. 대부분 재단이 대학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하기는 커녕 당연히 내어야 할 재단전입금조차 못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대학 운영을 학생 등록금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부의 등록금 동결이나 억

제 정책 또한 15년 넘게 지속하면서,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지요. 이러한 재정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향으로 대학들은 유학생들의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게다가 유학생은 정원 외이기 때문에 많을수록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지방대학이나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은 등록금을 깎아주어서라도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려고 하고, 서울의 주요 대학은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교육의 질을 고려하여 우수한 학생만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석종준 국내에 외국인 유학생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좋게만 해석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최근 적지 않은 대학들이 실제로 원하는 유학생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다수 유치하여 정작 함께 수업하는 한국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한국 대학교육의 위기를 상징하는 한 사례로도 볼 수 있을까요?

유재봉 아마 대학의 입장과 학과 교수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입장에서는 가능한 유학생을 많이 합격시켰으면 하지만, 학과 교수의 입장은 수업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학생만 입학시키려는 입장이지요. 성균관대의 경우 TOPIK 5등급이나 6등급 학생 중에서 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생들이 몰려있는 클래스는 수업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한국 학생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죠. 저는 이것만으로 대학교육의 위기로 보지는 않으며, 이러한 현상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대학 당국은 대학교육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유학생을 돕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가령 유학생을 위한 언어교육이나 글쓰기 교육 제공, 그리고 트랙을 달리하여 유학생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종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향한 선교의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면서도 대학 교육의 질 저하 방지라는 과제를 잘 극복하려면,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방안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유재봉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교수의 이중적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고요. 다른 하나는 학자와 교육자로서의 사명이지요. 이 두 사명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르지만, 실상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즉 교수는 학문과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유학생들에게 학문과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연구업적을 강조하는 오늘날 대학 상황에서 이 일이 결코 쉽지 않고요. 때로는 성가신 일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복음에 빛난 사람이면서 학문과 교육에 빛난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석종준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 청년 학생들이 유학온 외국인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 권면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재봉 이미 말한 것 속에 들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나그네와 이방인을 돌보는 하나님의 '궁홀'(헤세드)을 기억하는 일, 복음에 빛난 자라는 의식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의식,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기에 그 소명에 합당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교육자의 존재의의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습자를 위해 있는 것이라는 점이지요. 이러한 점들을 명심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유학생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FAITH & LIFE**

만남이 연결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창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미디어팀장, 위플랜트(WePlant) 대표)



나의 역할과 비전은 한국에 넘치게 부어 주신 문화예술자원과 그리스도인들을 연결하여 한국문화가 환영받는 전 세계 타문화현장에서 선교의 열매가 거두어지도록 네트워크를 만들고 에이전시를 통해 연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C-TentMaker 선교회'와 '위플랜트'(WePlant) 두 단체의 대표로 섬기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함께 미디어를 통한 선교의 필요가 커지면서, 미디어 영역에서도 선교적 차원의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150여 선교단체와 교단의 협의체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북미주선교운동기관인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등에서도 미디어 컨설턴트 역할을 하게 되면서, 협의체 내에 문화예술선교 실행위원회 등을 조직해 선교계와 문화예술계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나는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의 미디어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동역회와의 인연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 동역회의 온라인 미디어 사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역할을 파트타임으로

맡으면서 시작되었다. 웹사이트를 갱신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을 했고, '기독교사, 질문하다'와 같은 기획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다. 그리고 코로나19 기간 동역회 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중계하고 송출하는 데 전반적인 해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동역회에 온라인 영역에서의 필요가 더 많아지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서 거기에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더불어 내가 문화예술영역과 타문화선교의 연결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체 및 동역회 같은 여러 중요한 기관들의 '미디어 컨설턴트'라는 역할을 맡게 된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각 단체의 가치와 역할을 경험하고 배우며 각 단체와 관계를 맺도록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다.

나는 동역회에서 활동하면서 그동안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기독교 세계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방향을 찾아가는지를 가까이서 보게 되었다.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하는지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수호하며 세상과 더불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목마름의 해결 방안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의 오랜 헌신과 수고도 볼 수 있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의 문화예술영역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또 다양한 타문화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10여 년 전부터 타문화 선교와의 연결점에 관계된 사역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소명이 있음을 확인했다. 단회적 이벤트로서의 선교가 아니라 더 좋은 토양을 만들어 가는 오랜 과정으로서의 문화와 예술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 곧 선교관의 확장과 그 목마름의 해결에 힘을 보태는 것이 그 부르심 안에서의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선교관'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은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풀어야 할 숙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동역회 안에서 더욱 도전받으면서 해법의 실마리와 연결점을 찾고 싶다.

앞으로 나의 바람은 타문화 선교 영역에서 선교계와 문화예술계를 연결하는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교계와 문화예술계의 연결에 기독교 세계관을 정초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동역회 일원이 되게 하신 이유는 아마도 이러한 과정에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많은 그리스도인 아티스트들은 고민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만이 그리스도인 아티스트의 역할은 아닐 텐데, 세상에서, 그리고 나아가 K-문화의 위상이 높아진 이 시대적 상황에서 이들의 역할을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하면서도 그 활동 영역을 넓혀 주어 세계로 보낼 수 있는지를 동역회의 동역자님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이 지면을 통해서 드리고 싶다. 필요하다면 선교계와 문화예술영역의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주제를 정해서 모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새로운 선교적 역할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성경적 세계관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넘치게 부어 주신 문화예술과 미디어 자원이 전 세계로 흘러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 다시 살아나고 전 세계도 이들을 통해 복을 받는다고 믿는다. 이와 관련한 작은 시도의 하나로서 2023년 동역회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문화예술선교실행위원회 공동 주최로 청년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인도해 보기도 했다. 나는 앞으로도 동역회가 가진 가치가 더욱 잘 전달되도록 미약하나마 미디어 영역에서 좋은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많이 배우고 고민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이 타문화 선교를 위한 문화예술영역에서도 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정립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창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미디어팀장이다. 타문화현장에서 선교의 열매가 거두어지도록 네트워크를 만들고 에이전시를 통해 연결하기 위해 'C-TentMaker 선교회'(<http://tent-maker.net>)와 '위플랜트'(WePlant, <http://weplant.kr>) 두 단체의 대표로 섬기고 있다.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소하광명교회 파송 순회선교사이자 안수집사이다.

어두운 방 안에 있는 나를 찾으신 하나님

나오미 다르마데바 (이스트 앵글리아대학교 '미디어와 국제개발학' 전공 학부생)

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영국인 유학생이다. 평생을 기독교 가정에서 살아왔고 17살에 세례도 받았지만, 진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다. 또 나는 대학교 2년을 다니면서, 트라우마가 남을 만한 여러 사건을 경험했지만, 제대로 치료는 받지 못했다. 대신 그것으로 주변 사람들을 은근히 미워하는 강박한 마음이 생겼다.

나는 매주 집에서 성경공부와 새신자 프로그램을 돕고, 큰 행사를 인도하는 등 캠퍼스에서 전도 활동에도 함께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었다. 성경공부에 참여하면서도 몇 달 동안 성경을 읽지 않았고, 교회보다 클럽을 더 자주 갔기에 죄책감이 나를 집어삼켰다. 죄에 너무 익숙해져 내 죄의 잘못조차 볼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졌다.

생각해보니 나에게 한국행도 다소 애매한 결정이었다. 언니가 오히려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지원도 했지만 여러 번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첫 지원에서 합격했다. 하지만 언니가 받아야 할 축복을 내가 대신 받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고,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오는 데도 솔직히 고민이 많았다. 한국은 웬지 나에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았고, 이미 영국에서의 삶이 편안했기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고민 끝에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에 왔다.

나는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무사한 여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신앙을 되찾으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세상에 발을 함께 딛고 있었다. 한국에 오자마자 첫 며칠 밤을 클럽에 가서 술을 마셨던 기억이 난다. 사람을 좋아하는 기질도 있어서 한국에 온 첫 학기는 신앙보다 밤 문화를 더 우선시하였다.

그런데 지난 학기, 캠퍼스 전도를 통해 한국외국어대학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습관대로 주일 예배에는 계속 참석했지만, 교인들과 교제를 쌓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여전히 클럽에 가서 술을 마셨고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는 졸린 잠을 겨우 참곤 했다. 교회에 나가면 죄책감이 경감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갈수록 더 커졌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동안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고, 너무 무서워서 앞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기억이 난다. 매주 설교 말씀이 내가 지은 죄를 늘 다루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에서 내 삶을 감시하는 CCTV가 교회에 있는 것 같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어느 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말과 행동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버렸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내가 이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꼈기 때문이고,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내가 필사적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이중적인 삶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중에 마음속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다.

어느 수요일 저녁, 목사님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 한 사람씩 기도해 주셨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가 내 마음을 꿰뚫었다. 하나님께서 “너는 왜 무의미한 술과 무의미한 밤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나.”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았다. 또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주일에 나의 멘토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 말해주었다. 전에 나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 안에 이미 성령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지만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무시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불경한 것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이 죄책감이 나를 압도했고 마침내 삶을 바꾸고 영적인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움을 준 교회 친구들을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 것도 처음으로 느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국에서 이 작은 교회가 있는 대학 캠퍼스로 인도하셔서 내 인생에 그분의 더 큰 계획을 보여주셨다. 21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내 인생은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하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손을 잡고 그 어둡고 혼잡한 방에서 계속 내 이름을 부르셨다. 내 불결한 마음에 성령을 사슬로 묶으시고 나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평범한 외국인 유학생으로 한국에 왔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은 없다. 이 확신으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끊고 영적으로 더 훈련된 삶을 살고 싶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마셔봤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처럼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은 없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FAITH & LIFE**



글쓴이 나오미 다르마데바
(Naomi Dharmadeva)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East Anglia) 대학교에서 ‘미디어와 국제개발학’(Media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을 전공하는 학부생이며,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재학했다. 교환학생 시절 한국외국어대학교(정동영 담임목사)에 출석에서 성경공부, 새신자 프로그램의 도우미로 봉사했고, 특히 전도를 통해 많은 친구를 교회로 인도해 왔다.

한 유학생의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린스 오세안 (경북대학교 생명공학과 3학년)

나는 중앙아프리카 가봉 출신으로 수도 리브르빌(Libreville)에서 나고 자랐다. 가봉에서는 사립학교인 가톨릭 학교의 교육 시스템이 최고로 여겨지기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줄곧 가톨릭 학교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나는 고등학교 때 이과를 택했는데, 공부하다 보니 이과 쪽의 공부가 나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때 문학이나 경제학 같은 문과로 방향을 바꿀까도 고민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과가 맞는 길이라고 인도하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결국 이과에 남기로 했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2020년 나는 학업 스트레스를 받으며, 대학입학자격시험을 위한 마지막 시험 준비로 한창 바쁘게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세계적인 유행병 코로나19가 강타했다. 우리는 다행히도 마지막 학년 수업 절반 이상을 마친 상태였고, 커리큘럼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이 남지 않았다. 다만 다른 해의 선배들처럼 대학입학자격시험을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모의고사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심각한 상황이 지난간 약 3개월 반 후, 위생 안전 조치가 어느 정도 마련

되었기에, 우리는 다시 학교에 돌아가 약 한 달 반 동안 집중적인 학습 기간을 갖고 모의고사를 보았으며, 2020년 8월에 대학입학자격시험에 합격했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 유학을 결정했다. 그래서 2021년 고국 가봉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고 절차도 모두 마쳤다. 마침내 2022년 한국에 왔고,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우선, 거의 1년 동안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 공부에 집중했고, 대학 입학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도 통과했다.

2022년 3월 경북대학교 생명공학부에 입학했다. 1학년 동안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성적도 좋았다. 다만 대학의 시스템을 익히느라 스트레스가 좀 있었다.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그 속도에 압도되지 않았고 수업과 시험공부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페이스를 유지했다. 그리고 대학 생활 첫해에, 정신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기도 생활과 성경 읽기, 친구 사귀기, 적절한 야외 활동 즐기기는 것도 알았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매일 행복하게 주어진 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를 상상도 할 수 없고 아마 오래전에 학교를 그만뒀



을지도 모른다.

그러던 나는 2학년이 되자 깨달았다. 나의 한국어 실력이 1학년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2학년 수업은 차원이 달랐다. 수업의 20%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따라가려고 수많은 밤을 공부로 지새우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대부분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계속 울며 지냈다. 매일 불안감의 지배를 받았다. 마치 눈앞에 커다란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다. 하나님께 이 불안의 상태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수업을 잘 이해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또 성경을 읽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때 마침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을 보내 주셨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불안에 시달리는 나를 위로하게 하시고 마음의 쉼을 얻도록 하셨다. 다시 나는 힘을 내서 열심히 싸워나갔고,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느껴지든 무슨 일이 있든 그저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에 의미와 보람이 있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받고, 2학년을 성공적으로 마

치게 되었다.

이제 3학년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3학년 학교생활 역시 낮은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감사하게도 지난 학기는 좋은 성적과 새로운 친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경험, 신앙 성장으로 풍성해지고 놀라운 추억으로 가득했기에 기쁘게 잘 마무리했다. 이제 2학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모든 일에 행통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남은 학기들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모든 졸업 요건들이 문제없이 잘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현재 나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내 영혼과 마음이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학부 시절뿐만 아니라 이후 대학원 과정에서도 친히 인도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길을 계속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린느 오세안(Lyne Oceane)

중앙아프리카 가봉 출신으로 현재 경북대학교 생명과학부 생명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약 2년 반 전에 경북대학교회(이상욱 담임목사) 교인이 되었다. 경북대학교회 청년 셀 리더, 주일학교 도우미 교사로 섬겼고, 지금은 미디어팀에서 봉사하고 있다.

한국의 희망, 신앙, 치유의 메아리

아셀리나 무카체 (서울대 조경 및 농촌시스템공학부 석사과정)

나는 서울대학교에서 ‘조경 및 농촌시스템공학부’ 석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있다. 본래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양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내가 13살 때, 어머니는 흡연으로 중병에 걸렸는데, 수년간의 투병 끝에 다행히 기적적으로 회복하셨다. 그 후 어머니는 기독교로 개종하셨고 나도 그 길을 따랐다.

학부 시절 나는 모잠비크의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는데, 학업에 몰입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대학 졸업 후에는 한국에서 공부를 계속하기로 했다. 당시 나는 이미 한국 드라마와 한국 음악을 즐겼었고, 결국 이것이 유학을 한국으로 오게 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2021년에는 처음 장학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에 왔고, 1년 동안 제주도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지냈다. 나에게 이 기간은 친절한 사람들과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던 멋진 시간이었다.

2022년 나는 마침내 서울대학교의 ‘조경 및 농촌시스템공학부’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기대와는 달리, 외국인 학생으로서 적응이 상당히 어려웠다. 외국인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거나 대화에 소극

적인 사람들을 종종 만났다. 또 문화적 차이와 여러 오해로 고립감을 느꼈고 우울증, 불안, 불면증,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시달렸기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잘 관리하고 수면을 위해 약물에까지 의존하기도 하였다.

어느 날 서울대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상담 세션을 통해서 학교가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돕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매주 상담 세션을 방문해서 좋지 않은 모든 일에 자신을 탓하는 성향 등에 이야기를 나누며 도움을 받았다. 예를 들어, 나는 학교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저 여자 머리 못생겼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잘못이야”라는 생각에 머리를 들지, 숨겨야 할지를 고민했다. 또 친아버지가 나의 탄생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랐기에, 때때로 일어나는 자살 충동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상담했다.

나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내 공부에 흥미를 잃고 외로움도 너무 많이 느껴 대학원 과정을 중도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었다. 그러나 중도 포기는 내 인생 실패의 징조라고 여겼기에 결국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



었다. 2023년 어느 날, 담당 의사는 내가 복용하던 수면제가 효과가 없다며 더 강한 수면제로 바꾸어 주었다. 그 새로운 수면제를 먹었는데, 마찬가지로 잠은 오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말도 할 수 없었다. 정신은 깨어 있었지만, 몸이 마비되었고 두려움에 떨었다. 이때 나는 무심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바로 ‘모잠비크 여성의 날’에 만난 모잠비크 출신 여학생이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스마트시티 글로벌융합’을 전공하고 있던 그 여학생은 집에서 나에게 자신의 연구 경험을 공유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했다. 거기서 나는 그녀가 내 손을 잡고 기도하는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곧이어 나는 캠퍼스 내에 서울대학교회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국제예배에 초대받았다. 그렇게 나는 서울대학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되기 시작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우울증도 치유되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를 드린다.

나는 서울대학교회를 다니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었기에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나는 곧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건축 및 건축공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에서도 진학하여 계속 공부하게 된다.

나는 여전히 대중 연설에 대한 어려움과 같은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일하시며, 마침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시는 기회임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사야 43장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는 말씀처럼 말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깨어진 그릇이었던 나를 받아주셨고 어둠에서 구원해 주셨다. 오직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나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님께 감사드린다. **FAITH & LIFE**



글쓴이 아셀리나 무카체
(Acelina G. Mucache)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무슬림 가정 출신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조경 및 농촌시스템공학부’ 석사과정 졸업을 8월에 앞두고 있으며, 같은 대학교의 ‘건축 및 건축공학’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회 국제예배 교인이다.

훌륭한 제자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 구수환 감독의 <부활>(2020) -

강진구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영화평론가)



<울지마 톤즈>가 일으킨 여진(餘震)

명작은 생명력이 있어서 또 다른 작품을 생산하는 모체 역할을 한다. 구수환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부활>(2020)은 전작인 <울지마 톤즈>(2010) 제작 10년을 기념하여 만든 후속 작품이다. 강성욱 감독의 <울지마 톤즈 2 : 슈크란 바바>(2020)와 이우석 감독의 <이태석>(2022) 등의 영화들이 이태석 신부와 남수단에서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면 <부활>은 이태석 신부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활>의 가장 큰 매력은 ‘주바의과대학’을 다니는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을 목격하는 장면에 있다. 남수단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인 ‘주바의과대학’의 학생수는 650명. 그런데 이 의과대학에 다니는 이태석 신부의 제자만 40~50명은 죽히 될 거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왜 구수환 감독이 <울지마 톤즈>의 후속작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다.

“이태석 신부 때문에 의사가 되신 건가요?”라고 묻는 감독의 질문에 의대를 다니는 톤즈의 아이들은 예외없이 모두 손을 들었다.

가난과 내전으로 병든 이 나라에 와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브라스밴드를 조직하여 음악을 가르치며 아이

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는 전편에서 끝나는 줄 알았다. 아이들은 단지 이태석 신부와 즐겁게 공부하고 음악 활동을 하며 진료를 보는 이태석 신부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울지마 톤즈> 이후 영화 속 아이들의 미래를 그려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톤즈의 아이들은 이태석 신부와 함께 있던 시간을 꿈이라 여기며 남수단의 여느 아이들처럼 되풀이되는 가난과 질병의 현실 가운데 살지 않았을까. 그러나 영화 <부활>은 우리의 예상을 여지없이 깨버리는 마술과 같은 현실을 보여준다. 바로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의 성장을 통해 새로운 이태석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한국에 유학 온 톤즈의 아이들

<울지마 톤즈>가 전해준 깊은 울림은 톤즈의 아이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올 수 있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2012년 열린 음악회에서 빨간색 단복을 입고 ‘사랑해’를 부르던 여학생 ‘이순타’는 ‘톤즈의 아이들’ 가운데 하나라는 명예를 안고 이화여대로 유학을 오게 되었다. 16살만 되어도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자신의

인생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운명을 과감히 뿌리치고 한국으로의 유학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성 기숙사를 마련하며 여성 교육에 앞장선 이태석 신부의 교육관 때문이었다. 아순타는 이화여대의 도움으로 어학 과정을 1년 만에 마치고 화학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화학신소재공학과'에 입학했다. 45살 먹은 남자와 결혼을 시키려는 아버지와의 갈등도 2019년 그녀가 한 번의 유급도 없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면서 해소되었다. 한국어를 모른 채 한국에 와서 불과 5년 만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영화에서 아순타는 이태석 신부 묘 앞에 졸업장을 놓으며 이렇게 약속을 했다.

“오늘 신부님 묘지에 온 것은 앞으로 계속 열심히 잘 살겠다고 약속하러 왔습니다”

지금 아순타는 남수단의 석유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의료파업 사태 속에서 톤즈의 아이들을 생각하다

아순타 외에도 톤즈의 아이들 가운데는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이 더 있다. 이태석 신부가 졸업한 인제대 의대는 톤즈로부터 두 명의 유학생을 받아 훌륭한 의사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 2024년 제67차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 2,727명 가운데 이태석 신부의 권유로 의사를 꿈꾸은 토머스 타반 아콧과 존 마엔 루벤이 포함된 것. 2012년에 인제대 의대에 입학한 이들은 고국인 남수단으로 돌아가 이태석 신부가 못다한 의술을 펼치기 위해 각각 상계백병원 외과와 해운대백병원 내과에서 열심히 수련해 왔었다.

의대에 진학하고 한국에 유학을 온 톤즈의 아이들로부터 우리는 선교와 봉사가 개인과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첫째, 기독교 신앙 안

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키우는 교육에 투자하는 길이 가장 많은 시간이 드는 것 같아도 사실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생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교육자를 세우는 일이다. 톤즈의 아이들이 받은 교육의 중심에는 한센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았던 이태석 신부가 있었다. 학생들에게 굳이 이래라저래라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말보다 더 강하고 권위 있는 이태석 신부의 삶을 배웠던 것이다.

영화의 거룩한 힘을 말하다

이태석 신부가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성당에서 본 성자 다미안 신부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는 그를 끝내 사제의 길에 들어서게 하였고, 다미안 신부처럼 아프리카 수단의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처절히 버려진 한센병 환자를 곁으로 다가가도록 인생을 바꾸었다. 이태석 신부의 헌신적 사역을 다룬 영화 <울지마 톤즈>는 이태석 재단을 만들어 수단의 아이들을 돕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구수환 감독(PD)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권혁만 PD는 불교 신자가 <울지마 톤즈>를 만든 것을 보고 기독교 신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그린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2015)을 연출하여 TV와 함께 극장에서도 개봉하였다. 내년에는 손정도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호조>를 개봉할 계획이다. 영화는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FAITH & LIFE**

 글쓴이 강진구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에서 문화선교를 가르치는 교수이자 영화평론가이다. 극동방송의 해설이 있는 영화극장을 통해 기독교 영화 전파에 힘을 쏟으며 대중강연과 미디어를 통한 문화선교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죽음과 종교>, <감성세대의 영화 읽기> 등이 있다.

문화의 구속과 책임 있는 예술가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

일군의 작가들을 주축으로 한 퍼포먼스가 화랑 밀집 지역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서 펼쳐졌다. 그 주인공은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 '아트미션' 등 기독교미술 단체에 속한 작가들이다. 전 시장을 돌아보면서 이전보다 작품 경향이 다양해지고 주제도 풍부해졌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자연풍경과 도시풍경, 정물을 기용하거나 일상 속에서 누리는 은혜를 모티브로 한 작품도 볼 수 있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긴 것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 그 용어가 기독교인에게는 익숙하지만, 일반인에게는 '뜻 모를 종교 언어'로 들린다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프란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는 어떤 사람에게 말하고 싶으면 '먼저 그 사람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기독교 작가들의 작품이 풍경과 정물, 일상의 이미지 등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표시로 읽힌다. 특히 이점은 교회 바깥에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준수하고 있는 대화법이기도 하다.

나는 각기 다른 전시장에 진열된 수백 점의 작품을 접하면서 참여 작가들의 열정을 느껴볼 수 있었으며 신앙과 예술의 간극을 좁혀가는 모습에 고무되었다. 오늘과 같은 탈종교화된 문화 환경에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표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가.

그러나 작품을 보는 동안 고개를 까우뚱거리게 한 부분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체로 전시 출품작들은 세상의 어두운 측면보다는 밝은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도 있겠지만, 우리가 심리치료의 문화 안에서 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로도 이해된다. 언젠가 세상에 대한 탄식을 지울 채비가 되어 있는 듯하다.

우리의 세상이 꼭 밝고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죄의 파괴성이 삶의 전 영역에 퍼져 있다고 가르친다. 알버트 월터스(Albert Wolters)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계가 타락의 결과로 왜곡되었다며 손상된 측면을 지적한다. "왜곡의 실상은 아마도 우리를 개인의 삶에서 가장 명백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서 타락의 영향력을 가장 쉽게 인식한다. 살인, 간음, 도둑질, 불경, 그 외의 다른 많은 부도덕한 일들은 인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계획에 대한 분명하고도 광범위한 위반이다. (이것들은) 창조된 인간 기능들의 변질이며 피조물 탄식의 일부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안다"(롬 8:22)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과 가난, 환경파괴와 차별, 갈등과 인권유린, 탐욕과 착취에 매몰되어 있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문화 참여는 그동안 침묵하였거나 소극적이었던 입장에서 벗어나 목소리를 내기 시



2024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정기전 오프닝 장면

작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작 그들 작품의 내용이 적절하게 전달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세상은 여전히 죄, 타락, 왜곡으로 신음하며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증이 남는다. 셰퍼가 말했듯이 낙관적인 주제만을 다룬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독교 정신에 충실한 예술'이라기보다는 '낭만적인 예술'에 지나지 않는다. 일련의 전시를 통해 보여준 작품세계는 기독교 예술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빠뜨리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힐러리 브랜드(Hilary Brand)와 아드리엔느 채플린(Adrienne Chaplin)은 사도바울이 말한 “무엇에든지 참되며”(빌 4:8)를 회화적으로 정확히 옮긴다면 “그것은 죄 되고 타락한 세상에 대한 가차 없는 묘사가 될 것이다.”라고 해석하였다. ‘죄 되고 타락한 세상’의 조명이 오히려 비그리스도인의 예술작품에서 더 두드러진 것은 아이러니하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이렇게 조명하는 것은 그 원인을 모든 희망과 꿈이 사라졌다는 절망감을 표시하거나 특정 경제·정치적 시스템으로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이지 근원적인 타락의 심각성을 응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들의 의식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이 궤도를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에 반해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현시대적 사실을 응시하는 통찰이 부족하다. 교인의 예술계 진출은 칭찬할만하지만,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기 충족’과 ‘더 많은 충족’을 위해서 달려온 세상이 들려주는 ‘경고음’에도 귀를 기울일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런 사실에 대해 먼저 탄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할 때, 세상의 끝자락에 선 사람들에게 소망의 불씨를 건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선한 창조세계를 타락시킨 세상을 구속하셨음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원대한 계획을 이미 성취하셨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성취하시지는 않았다. 최종적인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세상은 구속 사역이 진행 중이며 여전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 문제는 어떤 희망도 없이 두려움과 절망 자체로 그치는가, 아니면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미지의 미래를 다함없이 소망하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신음하는 세상을 주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공활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창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들에 대한 섬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타락한 창조세계를 구속하였듯이 우리 역시 현재의 세상을 살아가는 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마땅히 그분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는 ‘책임 있는 예술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밝고 즐거운 면’만 추구하라는 낭만주의적 유혹도 거뜰히 떨쳐낼 수 있게 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프랑스의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의 비결

: 〈저출산, 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나〉(2024)를 읽고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저출산, 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나〉 / 이상민, 박동열 / 고북이 / 2024.

우리나라 100명의 부모(50가정)에게서 아이가 35명밖에 태어나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30년 후 다음 세대에서는 13명만 태어나게 될 것이다. 개인의 소멸, 가정의 소멸, 지역 사회의 소멸, 국가의 소멸 위기가 가시화 된 지 오래다. 저출산 대책 방향과 추진체계 수립을 위해 2006년 1월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시행했다. 이후 17년 동안 무려 3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위기 국면은 심화하고 있다. 올 7월 정부는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 안보의 위협만큼이나 중대한 정책 현안이지만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고 개인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생각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에 동조만 하는 실정이다.

일본과 서유럽 국가들이 앞서 경험했고 심지어는 가장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을 펼쳤던 중국도 2015년 두 자녀 정책을 발표했다. 각국의 저출산 대책은 국내 복합적인 사회문화적, 경제적 요인들과 교육제도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정책 선택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고 정책 효과를 예측하기도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1970년대 중반부터 종합적인 가족 정책을 지속적으

로 시행하여 1995-2010년 합계출산율 증가세를 이뤘고 이후 감소세로 반전되었으나 현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다차원적인 저출산 대책이 관심을 끄는 이유이다.

올 6월 유익한 학습서가 출간되었다. 〈저출산, 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나〉(2024, 고북이)이다. 부제가 “삶의 질을 위한 인구정책”이다. 흥미롭게도 이 주제는 사회 과학자가 집필했을 것 같은데, 두 저자(이상민, 박동열)는 프랑스어 교육을 전공한 언어교육학자이다. 저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활용했다. 학술 자료에 국한되지 않고 시의성 있게 서술하고자 국내외 언론자료, 정책 보도자료, 대사관 자료, 프랑스 교육기관 자료 등을 망라했다.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을 진단하고 사회적, 경제적 위기임을 피력했다. 제2부에서는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정책이 가족, 보육과 교육, 주택, 사회연대, 이민, 지역 균형발전 등의 정책들과 융·복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역설했다. 제3부는 120여 쪽을 할애하여 포괄적인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이 역작을 통해, 프랑스의 저출산 대책에서 주목할 부분으로 관점과 접근방식과 정책추진 내용이 보인다. 먼저 프랑스는 저출산 이슈를 가족 정책의 관점에서 대응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출산을 회복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과 생활, 보육 및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출산과 보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 프랑스는 서둘러야 할 저출산 대책을 느긋하게(?) 보일 사회문화와 교육제도와 연계하여 시행한다. 이를테면 프랑스는 사회 연대의 가치로 저출산 대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인의 출생과 성장을 교육의 공공성으로 일관되게 뒷받침한다.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서비스를 무상으로 심지어는 추가 지원금(장학금)으로 제공하지만, 영유아 보육 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은 공공과 민간 부문이 공급과 운영관리를 절반으로 분담하여 관리한다.

이 책은 프랑스의 복잡한 사회, 가족복지, 교육, 주택 및 경제 체계와 제도를 매우 수월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라는 나라와 이 나라의 포괄적 저출산 대책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흥미롭게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다. 저자들이 사회과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탐구력과 설명력이 매끄러운 문장으로 서술된 점도 독서의 유익을 더해줄 것이다. 저자들도 공지하였듯이 프랑스의 가족 정책을 그대로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으로 끌어들이 수는 없다. 하지만 기본적인 관점, 접근방식과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응용하기에는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저자들이 방대한 자료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해석해 낸 열정과 도전적인 노력에 비해 원문 내용과 저자들의 분석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았다. 출처표시가

소제목에 포괄적으로 제시된 점은 후속 연구를 위한 안내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마지막 절에서 보론처럼 제기한 ‘탈성장 사회’ 논의는 비록 저자들의 독창적인 제안은 아니지만, ‘저성장’을 넘어 ‘탈성장’으로 성숙(?)해지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탈성장’의 취지가 보완적일 수는 있지만,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돌이킬 수 없는 글로벌 경쟁구조가 야심적인 ‘탈성장 사회’를 구조적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기 때문이다. ‘탈성장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7가지 대안 가운데 ‘근거리 경제 구축’이나 ‘노동시간 단축’ 방안은 현재의 이행방식을 강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품 수명 연장, 광고 축소, 불필요한 산업 축소, 최고 임금 정책 등을 자유 시장경제 기반의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심층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프랑스가 저출산 위기에서 탈출한 것은 아니다. 종합적인 가족 정책을 완성한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꼴찌라고 해서 그동안 예산만 지출하고 뒷집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개인, 가족, 지역 사회와 국가의 생존 가치를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지혜로운 방안을 시행하지 못한 결과이다.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사례 탐구는 우리의 도전 의지를 새롭게 촉발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태항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다. 파리-낭떼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유학 중 파리한인침례교회를 계몽시키려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2015-17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 위원장으로 섬겼고 현재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100주년기독교회 장로이다.

심연에 머무르기, 역설을 풀어안기

: 탁장한의 <서울의 심연>(2024)을 읽고

김반석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연구과 박사과정)



<서울의 심연> / 탁장한 / 필요한책 / 2024.

동자동 쪽방촌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연구와 활동을 이어 온 탁장한의 반가운 신간이 나왔다. 탁장한은 전작 <누가 빈곤의 도시를 만드는가>에서 쪽방촌으로의 여정을 막 시작한 저자가 쪽방촌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들을 검토하고, 그 가운데에서 쪽방촌이라는 빈곤의 공간을 새롭게 읽어내기 위한 시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3년의 시차를 두고 출판된 신간인 <서울의 심연>에서는, 지난 5년의 기간 동안 몸소 경험한 쪽방촌의 현실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쪽방촌을 둘러싼 다양한 개입의 실태를 가감 없이 기록해내고 있다. 쪽방촌에 처음 관심을 가지고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자활 기관에서의 거주와 활동, 그리고 쪽방에 직접 들어가 지낸 5번의 계절까지, 지난 5년 동안 위치와 입장을 달리하며,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건져 낸 생생한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도입부에서는 거주공간으로서의 쪽방(촌)과 생활환경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해, 저자 자신의 입주 과정과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다. 무더위와 추위, 악취와 소음

과 같은 열악한 생활환경에 더하여,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계약관계, '집주인-관리인-세입자'로 이어지는 감시와 착취, 그리고 주민 간에 만연한 상호 불신과 반목까지, 쪽방(촌)을 둘러싼 참상을 여과 없이 기술하고 있다.

본론에 해당하는 세 장에서는 쪽방촌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세 기관인 쪽방 상담소, 사랑방, 교회의 빈곤 감소 개입에 대해 분석한다. 이들은 각각 절차성, 당사자성, 진정성이라는 서로 다른 관점으로부터 쪽방촌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각 기관이 수행하는 활동의 선을 따라가며, 실제 활동의 현장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과 목소리가 서로 엇갈려 나가는 지점들을 포착한다. 그리고 각각의 기관의 의도와 목표, 노력을 이해하고자 하면서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해결되지 못한 모순과 한계를 발견한다. 그리고 모순과 뒤틀림의 지점을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낸 역설 한가운데 머무르며 쪽방촌이라는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기관들의 배치를 찬찬히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각자

의 모순과 뒤틀림이 서로 부딪히고 얹혀드는 가운데, 쪽방촌이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심연과도 같은 공간이 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결론에서 저자는 쪽방촌이라는 심연의 공간이 쪽방촌으로 유인하고 정착시키는 '구심력'과 쪽방촌 바깥으로의 이주를 발생시키는 '원심력'의 절대적인 불균형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즉, 갈 곳 없는 빈곤층들이 지원을 위해 쪽방의 비인간적인 거주환경을 감내해야 하거나,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찾아가는 대신 지원에서 끊길 수밖에 없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리게 되면서, 결국 쪽방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제언으로서, 빈곤 개입 기관들의 선한 의도가 생각지 못한 역설을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빈곤 거버넌스 전반을 개선해 나갈 것, 쪽방촌의 조속한 재개발을 통해 쪽방촌 거주자들의 존엄한 거주를 실현할 것, 그리고 쪽방촌 바깥으로의 이주라는 선택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최대 미덕은 쪽방촌을 둘러싼 근본적인 역설과 모순을 그 자체로 끌어안고서, 선불리 누군가를 비판하고 쉬운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빈곤 당사자들과 지원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촘촘히 담아내고, 문제를 바라보는 다각적인 시점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역설을 견디지 못하는 선부른 개입은 빈곤의 현실을 거주자 개인의 죄와 나태의 문제로 돌리며 신앙의 이름으로 당사자들을 비판하거나, 운동의 목표를 선명히 드러내기 위해 다루기 난감한 내부의 실질적인 요구와 갈등상황을 외면하는 모순으로 나타난다. 이에 저자는 심연의 한가운데에 함께 머무르고, 역설을 직시하며, 우리 자신의 선한 의도와 사역이 모순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겸허히 타자에게 귀를 기

울이기를 요청한다.

필자는 모순과 역설의 심연 한가운데를 그려낸 본서의 서술을 보며,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머무르시고, 인간의 죄악과 모순을 온몸으로 끌어안으시고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다. 혼란스러운 세상 한가운데에서, 쉽게 비판할 대상을 찾기보다는 겸손한 자세로 타자들과 함께 머무르며, 모순과 역설을 직시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FAITH & LIFE**



글쓴이 김반식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서울대 인류학과 학부와 동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석사과정에서 한국 청년들의 지방 이주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는 지방 도시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과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높은뜻오차노미즈교회에서 유치부와 통역부를 섬기고 있다. 2022년부터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균관대 서울캠퍼스 유학생교회 소개

최위 (성균관대 서울캠퍼스 유학생교회 전도사)



성균관대 서울캠퍼스 유학생 교회(ISC-SKKU)는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유학생교회의 지원으로 2020년 3월 15일 성균관대 신우회 소속 교수 4명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수원캠퍼스 유학생교회의 지교회 형태로 있다가, 올 7월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회의 3대 비전은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복음증거와 고백이 있는 교회, 유학생 선교사를 양육하는 교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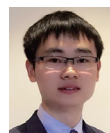
주요프로그램으로 주일예배, 수요 사경기도회, 매일성경 묵상, 유학생 리더 훈련, 성경공부 등이 있다. 목적은 이 모두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주일예배는 매 주일 오후 3시에 시작되고, 찬양은 중국어 찬양과 한국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있으며, 설교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이루어진다. 한국어로 설교할 때는 중국어로, 중국어로 설교할 때는 한국어로 번역 설교문을 제공한다. 예배는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으며, 방학이나 졸업으로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은 줌을 통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저녁(8:00~9:00)에는 성경공부와 기도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10:00~10:30)에는 줌으로 유학생들이 같이 QT를 하고 그것을 위챗(WeChat)으로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다.

성균관대 유학생교회는 매년 자체 여름 수련회도 있다. 즉 전국의 대학국제교회들이 함께 'GSM 연합 수련회'로 개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세례 및 성찬식, 새 친구 환영회, 생일 축하, 식사교제, 명절 행사, 야외예배, 캠퍼스 전도, 성탄절 행사, 특송, 친교활동, 한국어 교실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평일에는 유학생들을 위해 예배당을 살롱 라운지로 제공하여 커피나 차를 마시며 교제하거나 학습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성균관대 서울캠퍼스 유학생교회에는 섬기는 교수님들 외에 중국인 전도사, 한국인 전도사 2명이 함께 예배를 돕고 있으며, 현재 교회에 등록된 유학생은 대부분 중국인으로 총 46명이다. 2021년 부활절에 처음으로 2명의 중국 유학생이 세례받은 것을 시작으로 26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17명의 졸업생을 중국으로 파송하는 등 풍성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공동체이다! **FAITH & LIFE**

글쓰미 최위

성균관대 유학생교회(ISC-SKKU, 서울) 전도사이다. 중국 산둥성 출신으로 현재 중국어 설교와 한국어 설교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일로 섬기고 있다.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준비 중이다. 중국 가정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목회를 위해 한국 유학을 와서 한국성서대학교 성서학과 학부와 감리교신학대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했고, 청주종은교회 중국인예배 사역자를 역임했다.



성균관대 유학생교회(ISC-SKKU, 서울) 교인 소감문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나는 2022년부터 성균관대 서울캠퍼스 유학생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했지만, <복음의 기초>라는 책을 통해 성경의 핵심 메시지와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책은 나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을 한층 더 성숙시켰던 것 같다.

또한 리더 교육 때 교수님께서서는 항상 우리에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옛것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의 변화를 얘기하자고 하셨는데, 처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실감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고 있다. 교회에서 형제자매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내 믿음은 더욱 굳건해져 갔다.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확실하신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은 20년 동안 불신자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져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중시하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간직하면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

 글쓴이 항목자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석사수로



교회를 통해 받은 선물들

2년 전에 중국에서 한국에 유학을 와 성균관대 서울캠퍼스 유학생교회의 일원이 된 이후, 나의 삶에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나는 간단한 한국어 문장조차 거의 이해하지 못했고, 코로나19 기간에는 세 번이나 감염이 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기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 형제자매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한국어 구사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 매일 새로움을 느끼며 살고 있다.

중국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중국에서 대학 강사로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학생 신분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으로 새롭게 적응하는 과정은 개인적으로 매우 큰 도전이었다. 연구 분야의 상이함, 학업의 부담, 직장인에서 학생으로의 신분 변화, 여러 개인적인 문제들이 겹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불안과 스트레스도 상당했다. 하지만 성균관대 유학생교회에 다니면서 교인들과의 따뜻한 교제, 성경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안식을 갖게 되었고, 불안과 걱정을 이겨내었으며, 나아가 믿음의 중요성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돕는 것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글쓴이 이원호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박사과정



판 프린스터러의 기독교 세계관(III) : 칼뱅주의



19세기 네덜란드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던 판 프린스터러(Groen van Prinsterer, 1801-1876)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에게 큰 영향을 준 그리스도인이다. 특별히 그는 개신교 정통주의 신앙인으로서 프랑스 혁명의 반신앙적 성격을 주목하면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반혁명당 창당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판 프린스터러의 사상을 다루는 것은 초기 네덜란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사상적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신앙과 삶>은 ‘온전한 지성’ 지면을 통해 3회에 걸쳐 간략히 나누고자 한다.

판 프린스터러의 사상과 삶을 이끈 힘은 칼뱅주의라고도 불리는 개혁 신앙이었다. 신실한 신앙인으로 칼뱅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아내 벅지 반 더 후프가 자기 남편을 칼뱅주의로 이끈 주인공 중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전기 작가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아브라함 카이퍼를 칼뱅주의로 이끈 중요한 동인 역시 시골에서 살던 몇몇 평범한 칼뱅주의자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한다. 평범하지만 신실한 신앙적 삶의 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이유이다.

이 신앙에 의해서 판 프린스터러는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것을 이루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 그는 이 섭리의 손길을 자기 조국 네덜란드에서 발견했다. 지금의 베네룩스 3국인 저지대 지역에 루터의 가르침과 칼뱅의 개혁 신앙이 전파될 때에 그들은 스페인의 통치 아래 있었다. 개혁 신앙을 접한 국민은 종교의 자유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오렌지의 윌리엄’(William of Orange) 영도 아래 독립을 쟁취하였다. 판 프린스터러는 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였다. 곧 네덜란드의 출발이 칼뱅주의 신앙이었으며, 따라서 그 사회가 칼뱅주의 사상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었다.

이 신앙 체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함께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한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은 도덕적 선이라는 열매를 내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상과 삶은 도덕적 타락을 초래한다. 판 프린스터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세력을 ‘혁명’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이것은 당시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역을 휩쓸던 혁명 정신과 그로 인한 혼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유럽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동기가 되었던 계몽주의 역시 그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네덜란드를 개혁 신앙에 근거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판 프린스터러는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 배후에 있

는 ‘반신국적’ 원리를 ‘혁명’이라 부르면서 그 대안으로 정통 기독교 신앙과 성경적 사상에 근거한 새로운 원리를 네덜란드 사회 전체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 원리는 세계관으로 정리되어 가르쳐져야 했다.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맡겨진 세상과 사회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인간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별히 교육 등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개발하고 적용하고 가르쳐야 했다.

공교육이 침해한 투쟁의 장이 되었다. 17세기까지 네덜란드의 초등 공교육은 대체적으로 개혁주의적이었다. 하지만 계몽의 정신과 혁명의 기운과 함께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고 초등 교육은 오로지 국가의 몫이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초등 교육은 혁명 정신에 지배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판 프린스터리는 교육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 교육의 자유란 부모가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기 자녀의 종교와 도덕 교육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스스로 교육기관을 세우거나 선택하여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어야 했다. 동시에 정부는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차별해서는 안 되었다.

그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좋은 것이 ‘영역주권론’이었다. 인간 사회는 가정, 교육, 예술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은 인간 사회의 통치자로서 그 각각의 영역을 위한 법칙을 내리셨다. 이 법칙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길이다. 어느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을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국가가 그 모든 영역을 지배하려는 시도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 원리는 혁명 정신으로 무장한 국가가 반혁명적인 신자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근거가 되었다. 특별히 공교육을 국가가 장악한 후에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막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또한 교육을 국가가 장악하여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혁명의 기운이 온 유럽으로 퍼져 나가고 있었고 각 나라는 무신론적이고 세속적인 원리로 국민의 삶 전체를 지배하려 하고 있었다. 영역 주권 사상은 이 흐름에 대항하는 유력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해서 꽃 핀 이 사상은 판 프린스터러에게 이미 싹트기 시작했다.

판 프린스터리는 역사학자로, 정치가로, 저술가로 이 이념을 위해 싸웠다. 그 30년간의 싸움을 “병사가 없는 장군의 싸움”이라고 부르곤 한다. 하지만 그 싸움을 이어받은 아브라함 카이퍼는 비상한 재능과 집중력으로 그의 사상을 발전시켜 네덜란드 사회에 적용하였다. 장군은 병사가 없어도 싸울 만한 싸움은 싸워야 한다. **FRITH & LIFE**

글쓴이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목사이다.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다가, 영국에 유학하여, 서레이 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에서 ‘예베소서 5:22-33’ 연구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에스라성경대학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등에서 강의했고, 지금은 목회와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거짓과 속임의 역사>(드림북), <중생과 자기 부인>(드림북), <홍해에서 요단까지>(성의책방), <땅에 기록된 하늘의 법>(성의책방) 외 다수가 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40주년 기념행사

주제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40년,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일시 : 2024년 10월 25일(금) 13:30~19:40
장소 : 삼일교회 B관 1층 소예배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40주년 기념 제1회 기독교 중고등학생 독서대회

기간 : 2024년 7월 22일 ~ 9월 30일
접수 : 구글 신청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info@worldview.or.kr
구글신청서 양식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게시판 참고(bit.ly/2024제1회독서대회)
방식 : 지정도서 중 1개 자율선택 후 독후감 제출(고등부 & 중등부)

제7회 기독교대학원생 북 콘서트

주제 :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복음주의 종말론 논쟁 & 이해)
일시 : 2024년 8월 16일 저녁 7:00 ~ 8월 17일 낮 12:40
장소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1동 107호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제1세션 : 8.16(금) 저녁 7:00 ~ 저녁 10:30
〈천년왕국 논쟁〉(새물결플러스) 발제 60분 | 비평 30분 | 자유토론 70분
제2세션 : 8.17(토) 오전 9:20 ~ 낮 12:40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IVP) 발제 45분 | 자유토론 45분
* 특강 강사 : 이필찬 박사 (요한계시록연구소 소장, 前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교수)
특강 40분 | 소그룹 20분 | 질의문답 40분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이사장 신국원(충신대 명예교수)
이 사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동열(서울대 교수), 박영주(미드웨스턴 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최현일(샘병원 의사),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김태항(명지대 교수), 문준호(휴비츠 프로)

실행위원회(임기 : 2023.01.30.~2025.01.29.)

실행위원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실 행 위 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기현(로고스서원 대표), 김미영(사람과삶 대표), 김예원(VIEW 간사),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김태항(명지대 교수), 문준호(휴비츠 프로),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이병주(기독교를가회 대표), 안승범(경희대 교수), 이상민(교육학자),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숭실대 교수), 이재희(가천대 교수),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조예상(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교), 최용준(한동대 교수), 박해일(경희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김태항(명지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고세일(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윤현준(숭실대 교수), 부총무 박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박해일(경희대 교수, 뇌과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동혁(연세대 교수, 구약학),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박원근(이화여대 교수, 국제어문학), 송재일(명지대 교수, 법학), 신웅철(숭실대 교수, 서양철학), 안소영(경상대 교수, 국제경제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충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 VIEW(전성민 대표)

1)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 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VIEW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입학 안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 CTC(유경상 대표)

- **어린이 교육** : CTC 온오프라인 기독교세계관 학교인 '하이세 아카데미' 5학기 '하나님, 공부가 뭐예요.'와 어린이/청소년 월패 아 "천로역정"이 종강했다. & 수영로 교회의 <하나님 미디어가 뭐예요>, 삼일교회, 성광교회의 <하나님, 공부가 뭐예요>를 종강했다.
- **지도자 교육** :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원리와 실재를 공부하는 '제5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본과정'과 어린이세계관 교육을 준비하는 '제4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강사과정'이 진행 중이다.
- **부모 교육** :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인문고전 교육 프로그램인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에서 '기독교세계관으로 <천로역정> 읽기'가 종강했다.
- **대학생 교육** : 대학생 교육 : 아신대학교 "기독교세계관" 수업이 종강했다.
- **교회 교육** : 강남삼성제일교회 전교인 수련회 기독교세계관 세미나(7월 29~31일), 예수인교회 나니아세계관캠프(8월 8~10일), 수영로교회 나니아세계관캠프(8월 22~24일).
- **평택대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기독교세계관 MTS 과정 개설** : CTC의 지도자 과정과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학 석사 프로그램으로 2학기부터 시작된다. 삶의 모든 영역과 사역과 교육 현장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정립하고 적용하기 원하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을 초대한다.

※ CTC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참여 신청은 CTC 사무국(010-3673-8439) 또는 CTC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로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 2024년도에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 세우기'를 목표로 하는 CTC 사역에 동역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신간 소개



《단단한 결혼》 게리 토마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376면 | CUP

결혼 생활을 단단한 요소로 만들어줄 슬기로운 이야기

"인생의 폭풍을 잘 이겨낸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인생의 어려움을 대비하는 지혜를 제공한다. 실제 사례와 그 상황에서의 내면의 생각들까지 소담히 담겨 있어 성경적, 심리적, 상담적 구체적인 지혜와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책이다."



《서번트 리더》 켄 블랜차드, 필 하리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1180면 | CUP

최고의 리더는 서번트 리더다! 시대를 초월하는 예수 리더십의 원리

서번트 리더십의 의미, 서번트 리더의 동기와 성품, 리더십의 관점과 방법, 리더십의 행함과 적용, 비전에 헌신하는 매일의 실천 등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서번트 리더의 원리를 제공한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24년 5월, 6월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4년 5월	2024년 6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4년 5월	2024년 6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770,000	1,870,000	인건비	일반급여	5,455,000	5,455,000
	임원회비	650,000	710,000		기타급여	400,000	400,000
	일반회비	4,785,000	4,235,000		소계	5,855,000	5,855,000
	기관후원금	2,850,000	5,1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850,000	850,000
	월드뷰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413,414	405,481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133,824	138,548
	CTC후원금	60,000	60,000		우편료	16,200	1,240
	VIEW후원금	1,060,000	1,090,000		소모품비	0	0
	기타후원금	0	0		비품	0	0
	월보구독료	340,000	310,000		식비	295,500	287,300
	학술지원금	0	0		퇴직연금	439,230	439,230
	세계관사역지원금		0		4대보험료	936,120	935,640
	기타	719	0		회의비	0	0
					회계용역비	55,000	55,000
					여비교통비	0	0
					서무비	55,000	55,000
					기타(지급수수료)	137,139	138,432
	소계	10,515,719	13,425,000		소계	3,331,427	3,305,871
기타수입	일반이자	0	6,135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930,705	990,870
	법인세환급금	200	0		소계	990,430	1,050,595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인쇄비	0	2,673,660
	기금차입	0	0		발송비	0	608,610
	결산이자	0	0		홈페이지/홍보비	423,770	0
	예수금	525,570	488,570		소계	423,770	3,282,270
				기타	세금	210,720	68,340
					잡비	300	300
	소계	525,770	494,705		소계	211,020	68,64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0	0
	세계관기타수입	0	0		세계관행사준비	246,000	0
					세계관기타	0	0
	소계	0	0		소계	246,000	0
학회	학회이사회비	210,000	210,000	학회	학회강사료	1,500,000	0
	학회행사수입	630,000	0		학회장소사용료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1,376,000	0
	학회지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1,309,651	0
	학술지심사비	0	0		학술지인쇄비	285,000	0
	학술지게재료	0	3,900,000		학술지발송비	0	0
	저작권료	0	0		학술지심사료	0	0
	학회기타수입	1,000,000	0		학회기타	20,000	0
	소계	1,840,000	4,110,000		소계	4,490,651	0
전월 미수금	전월 CMS입금	1,083,910	1,029,405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미수금	1,029,405	985,450
	전월 이니시스입금	70,000	10,00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10,000	10,000
	소계	1,153,910	1,039,405		소계	1,039,405	995,450
당월 수입액		14,035,399	19,069,110	당월 지출액		16,587,703	14,557,826
전월 이월액		14,815,564	12,263,260	차월 이월액 (잔액)		12,263,260	16,774,544

* CMS,이니시스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4년 5월)

5천 강대웅, 강연희, 곡도명, 구성덕, 권지연, 김경호,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웅, 김봉현, 김상욱, 김섿별, 김성권, 김성욱, 김성찬, 김성호, 김승택, 김영주, 김정명, 김정성, 김정은, 김형근, 김화년, 김홍영, 김희원, 노승욱, 박광재, 범경철, 생명의강, 손영경, 송시섭, 신종철, 오경숙, 유충열,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원재, 이은미,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소연, 임형준, 정재수, 장현정, 전보규,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연무, 최원길, 하태실, 한배선, 허선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균, 백예은, 손화정, 이은선, 전영식, 전영규, 1만 강연정,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용재, 고철웅,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식, 김경진, 김광태, 김규욱, 김남진, 김능노, 김도형, 김동연, 김민석, 김병국, 김병운,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섿별,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세령,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만, 김재정, 김정일, 김정은, 김정철,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종철, 김자남,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김희년, 남선우,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류화원,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박능안, 박동현, 박명욱, 박민균,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원근, 박은주, 박종욱,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부천평안교회, 사호행, 서선정,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창민,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은희, 송철호,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안석, 안승범, 양성건, 양성철, 양승규,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염동훈, 오민용,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유건호, 유경재, 유기남, 유상원, 유상환,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재림, 윤태형, 이강, 이경직,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미,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수진, 이승업, 이시영, 이아름, 이언구, 이연의,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준, 이우미,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기, 이정길,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원, 이진희,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희진, 이화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준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호,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대준, 전명희, 정동관, 정봉현, 정성경, 정용수,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규, 조성권, 조승희, 조영우,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용, 조현진, 조혜선, 주호영, 지미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두, 최영, 최용석, 최우성, 최은정, 최한민, 최현식, 최혜경,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하재희, 한동민, 한미영, 한신영, 한화진, 한희수, 허연, 허현, 홍구화, 홍요섭, 홍정석, 홍종인, 홍판석, 황기철, 황도웅,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익찬, 황혜숙,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2만 강석분, 강윤관, 구준호,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정욱, 김정호, 김태진, 김희영, 노주하, 박기모, 박해일, 박홍식, 빛과소금교회, 송찬호,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연, 이기서, 이수형, 이연우, 장인석, 정훈, 조은주, 채기현, 최현중, 허정도, 황혜정, 2만5천 한운식, 한지현, 3만 강다일, 고세일, 김경민, 김대인, 김두환, 김방용, 김여원, 김용복,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서성록, 손화철, 송태현, 신해경, 오지식, 이은실, 잡지협회, 전상홍,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하, 황영철, 황정진, 황혜원, 황원일, 박성태, 4만 문석운, 심정연, 우병훈, 5만 구아름, 김중우, 김진, 김태훈, 손정업, 양승훈, 윤석찬, 윤현준, 이대경, 이상민, 이주은, 전희경, 정은애, 6만 김용덕, 방연규, 석종준, 송종철, 신동천, 정강희, 허승근, 7만 최태연, 10만 김택호,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양성만, 윤원철, 장수영, 12만 김동혁, 김민철, 김주경, 박문식, 서미경, 천연금, 15만 최원일, 50만 김신하,

계 7,825,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고제교회, 다온공동체교회, 일원교회, 10만 개복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로고스교회(김기현),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예수향남교회, 예신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원돌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삼일교회

계 2,900,000원

전체 10,725,000원

회원후원

(2024년 6월)

5천 강대웅, 강연희, 곡도명, 구성덕, 권지연, 김경호,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웅, 김봉현, 김상욱, 김섿별, 김성권, 김성욱, 김성찬, 김성호, 김승택, 김영주, 김정명, 김정성, 김정은, 김형근, 김화년, 김홍영, 김희원, 노승욱, 박광재, 범경철, 생명의강, 손영경, 송시섭, 신종철, 오경숙, 유충열,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원재, 이은미,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소연, 임형준, 정재수, 장현정, 전보규,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연무, 최원길, 하태실, 한배선, 허선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균, 백예은, 손화정, 이은선, 전영식, 1만 강연정,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용재, 고철웅, 공승근,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식, 김경진, 김광태, 김규욱, 김남진, 김능노, 김도형, 김동연, 김민석, 김병국, 김병운,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섿별,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세령,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만, 김재정, 김정오, 김정일, 김정은, 김정철,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종철, 김자남,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김희년, 남선우, 노주하,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류화원,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박능안, 박동현, 박민균,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원근, 박은주, 박종욱,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부천평안교회, 사호행, 서선정,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창민,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은희, 송철호,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심정연, 안석, 안승범, 양성건, 양성철, 양승규, 양행모, 양혜영, 연혜민, 염동훈, 오민용,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유건호, 유경재, 유기남, 유상원, 유상환,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용순, 윤재림, 윤태형, 이강, 이경직,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미,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수진, 이승업, 이시영, 이아름, 이언구, 이연의,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준, 이우미,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기, 이정길,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원, 이진희,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희진, 이화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준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호,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대준, 전명희, 전진영, 정동관, 정봉현, 정성경, 정용수,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규, 조성권, 조승희, 조영우, 조은향, 조이수, 조현용, 조현진, 조혜선, 주성탁, 주호영, 지미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두, 최영, 최용석, 최우성, 최은정, 최한민, 최혜경,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하재희, 한미영, 한신영, 한화진, 한희수, 허연, 허현, 홍구화, 홍요섭, 홍정석, 홍종인, 홍판석, 황기철, 황도웅,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익찬, 황혜숙,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2만 강석분, 강윤관, 구준호,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정욱, 김정호, 김태진, 박기모, 박홍식, 송찬호,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윤재림, 이연, 이기서, 이연우, 이영미, 장인석, 정훈, 채기현, 최현중, 추명순, 허정도, 황혜정, 2만5천 한운식, 3만 고세일, 김경민, 김대인, 김두환, 김방용, 김여원, 김용복,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서성록, 손화철, 송태현, 신해경, 이근호, 이은실, 전상홍,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하, 황영철, 황정진, 황혜원, 4만 문석운, 우병훈, 5만 강미리,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손정업, 양승훈, 윤석찬, 윤현준,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정주현, 6만 권유리아, 배덕만, 석종준, 송종철, 옥필훈, 조현우, 7만 강다일, 최태연, 9만 이근호, 10만 김지원,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윤원철, 이은경, 장수영, 황준용, 12만 김민철, 김성현, 박문식, 이세하, 홍승현, 15만 최원일, 120만 유재동,

계 8,435,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고제교회, 다온공동체교회, 일원교회, 10만 개복교회, 계산제일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로고스교회(김기현),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예수향남교회, 예신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원돌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새연약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삼일교회, 40만 수영로교회, 200만 할렐루야교회,

계 5,200,000원

전체 13,635,0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김유준	서울 주빌리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연구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김셋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교육심리학, 오하이오주립대 Ph.D, 정회원
	김지원	백석대 교수, 물리치료학, 연세대 Ph.D, 실행위원장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실행위원
	문준호	휴비츠 프로,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이사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데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체계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현준	송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바드대 로스쿨 석사, 실행위원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편집실무자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이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 D. 정회원
	석종준	사무국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반석



김유준



김셋별



김지원



김혜정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박흥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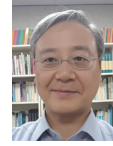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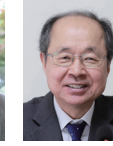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5만원	☐ 기타 (원)
후원방법	☐ 매월 CMS 자동이체		☐ 매월 직접 입금	☐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 25일	□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출입기관이: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유인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예금주 또는 가입자)

(인) 또는 서명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 대회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읽기>

제출기간
2024. 7.22 - 9.30

2024학년도 제1회 기독 중고등학생 독서대회

대 상 : 전국 기독 중고등학생
기 간 : 2024년 7월 22일 ~ 9월 30일
접수방법 : 구글신청서 작성(QR코드) 및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e-mail 제출 ✉ info@worldview.or.kr
양 식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게시판
(bit.ly/2024제1회독서대회)
지정도서 : 1권 자율선택 후 독후감 제출

고등부	쉽게 풀어쓴 세계관 특강(손봉호) CUP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크리스파커) 탬복
	기독교세계관 바로세우기(류현모, 강애리) 두란노서원
중등부	기독교세계관이 필요해(정석원) 홍성사
	니고데모의 안경(신국원) IVP

시 상 식 : 2024년 10월 25일(금) 삼일교회B관 소예배실 오후6시
시 상

부문	고등부	중등부
대상(1명)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상 도서상품권 20만원	
최우수상(1명)	좋은교사운동 이사장상 도서상품권 10만원	(사)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이사장상 도서상품권 10만원
우수상(2명)	좋은교사운동 이사장상 도서상품권 5만원	(사)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이사장상 도서상품권 5만원
장려상(4명)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상 도서상품권 2만원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상 도서상품권 2만원

(※당선작은 저널 '신앙과 삶'에 기고 예정)

주 최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좋은교사운동, (사)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협 찬 : 국민일보
문 의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무국(02-754-8004)

